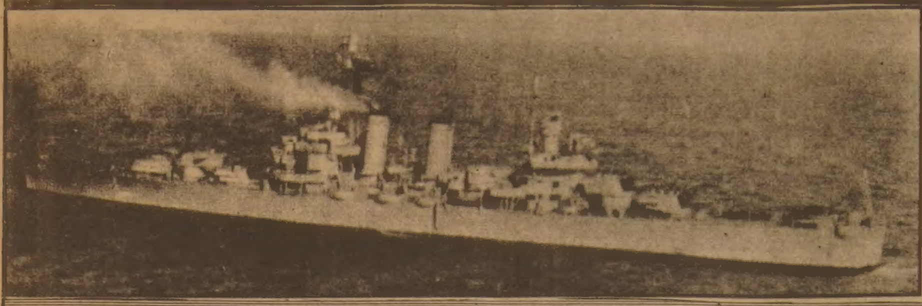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14 1982년 5월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May 4,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성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Y 5 1982


←영국군의 공격을 받은 알젠티나군 유일의 순양함 제너럴·벨그레이노호.

◆앤드류 왕자

영·알젠 전쟁 이틀째
알젠티나순양함 격파
미국은 중재포기 「영」지지

영국해군은 포크랜드군도를 둘러싼 알젠티나와의 전투 2일째인 2일 알젠티나 유일의 순양함 「제너럴·벨그레이노」를 격파시켰다고 영국 국방성이 이날밤 발표했다.

영국국방성은 천명의 승무원을 실은 1만8백톤급 알젠티나 순양함 벨그레이노가 영국 잠수함에의해 심한 파손을 입었다고 전했으나 알젠티나측은 영국측의 공격만 확인했을뿐 피해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은 1일 새벽3시40분(토론토시각) 포크랜드군도 포트·스탠리섬의 공항에 레이저 유도탄인 장거리 발칸 폭탄공격을 퍼부은데이어 항공모함 헤르메스 소속의 전함들이 해안선상의 알젠티나 군기지에 포격을 퍼부었다.

포트스탠리에서 5,500Km 떨어진 아센션섬에 정박한 항공모함 「헤르메스」호와 「인빈시블」호에서 파견된 수직이륙 해리어즈·제트기는 알젠티나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50피트 상공을 고공비행, 포격을 가했고 알젠티나공군은 미라쥬·제트기로 맞섰다.

알젠티나군은 첫날 접전에서 적어도 1대의 구축함과 영국제트기 2대를 격추시키고 영국조종사 1명을 사살, 다른 1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으나 영국측은 제트기 1대만 기체 뒷날개가 파손된 채 모함으로 돌아왔다고 발표, 서로 다른 사실을 보도했다. 모함으로 돌아온 영국군 조종사들은 알젠티나군의 반격이 치열했으나 아군의 손실은 경미했으며 알젠티나 제트기 3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2일의 알젠티나군 순양함 격파에 나선 영국측 잠수함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군사 분석가들은 영국이 포클랜드군도 근해에 4대의 핵보유 잠수함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국방성의 발표로는 벨그레이노 순양함이 완전침몰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벨그레이노호는 2차대전때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시 출동한 순양함중 남아있는 유일한것이다.

한편 헤이그장관의 7개 평화안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2일밤 긴급 군부지도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알젠티나의 데리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와 전 세계에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항공모함 「인빈시블」 소속 헬리콥터조종사인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왕자(22)도 다른 해군들과 똑같이 작전에 참가중으로 여왕이 그를 일선에서 빼내려 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는 낭설이라고 버킹검궁대변인이 밝혔다.

앤드류왕자는 찰스황태자에 이어 왕위계승 제2위이다.

30일 상오 영국의 해공양면 봉쇄령이 선포한대로 발동된데 이어 미국이 지난 4주간에 걸쳐 시도해왔던 평화중재 노력을 포기하고 영국지지를 정식선언하자 아르헨티나는 유엔안보이사회가 채택했던 결의안을 수락, 마지막 순간에 유엔의 중재를 요청했었다.

미국의 알렉산더·헤이그국무는 30일 애르헨티나에 대해 수출입은행 크레딧중단, 상품크레딧보증중단등 경제봉쇄와 무기수출중단령을 내리고 미국은 포클랜드위기에 있어 영국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어떤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상오 백악관에서 열린 비상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된 이같은 레건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헤이그국무는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물론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대·고대생 10명체포
반미전단뿌려…봄학기이후 전국서 26명

(서울-AP) 반미와 반정부구호가 담긴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10명의 대학생과 22살난 청년한명이 체포됐다고 관계당국이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강원대학과 고대에서 이들 학생들이 체포됨으로써 지난3월, 봄학기 이후 반정부활동으로 붙잡힌 학생수는 26명으로 늘어났다.

의사 파업 종지부
「온」주정부 타협성공

파업으로 강경하게 맞섰던 온타리오주 의사들은온타리오주정부와 진료비 인상에 극적 합의, 파업을 끝내고 정상업무로 돌아갔다.

1일 최종합의된 타협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정부는 82, 83회계년도에 약2백만달러, 그 다음해에 약3천3백만달러를 의사들의 진료비로 추가지출케 됐고, 이에따라 의사들의 82년도 평균소득은 연봉 $92,000이 된다.

온타리오주정부가 의사봉급인상에 필요한 돈을주민들의 세금및 OHIP프리미엄으로 충당할지 정부의 다른 일반경비에서 충당할지 여부는 이달말 있을 새 온타리오주정부의 예산안에서 밝혀질 것이다.

의령사건 범인 우순경시체 화장

(부산 1일=연합) 경찰은 지난 4월26일 경남 의령군 주민 대 학살의 장본인 우범곤순경의 시체가 지난 30일 아침인찍 그의 가족에게 인도됐다고 말했다. 처음 우순경의 시체 인도를 거부했던 가족은 곧 그의 시체를 화장시켰다.

우순경은 지난 26일밤과 27일아침까지 술에 만취, 카빈총과 수류탄을 무차별난사, 궁유면 주민 60명을 사살하고 36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등 발작적 난동을벌인후 자폭했다.

당국은 범행당시 우순경이 정신착란증세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10만 불교도 연등행렬
1일 석가탄신일 맞아

(서울 1일=연합) 10만여명의 불교신도들이 1일밤 서울 중심가를 행렬하여, 석가모니의 2526회 탄신을 축하했다.

이날 불교신도들은 소원성취를 비는 뜻으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등을 들고 행렬, 서울의 밤거리를 오색찬란하게 장식했다.

이같은 연등행렬은 고대 신라왕조(BC57~AD935)이래 부처님오신날의 주요행사의 하나가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교신도 10만여명은 이날 하오5시 여의도광장에 집결 2시간동안 불공을 드리고 한국불교의 본산지라고 일컬어지는 조계사까지의 10Km를 행진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계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등 포함, 18개 종단의 합동으로 행해졌다.

관광버스 추락
불교신도 11명사망

(경주 1일=연합) 부처님오신날에 관광버스가 계곡으로 추락 적어도 11명의 불교신도들이 사망하고 2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버스는 1일아침 일찍 16방의 불교신도들을 전남 광주에서 태우고 불교명소의 하나인 석굴암으로 가다가 불국사와 석굴암사이의 굴곡진 협로에서 갑자기 앞에 나타난 택시를 피하려다 80미터 계곡으로 떨어졌다고 경찰 대변인이 발표했다.

중경상자는 모두 경주병원에 이송 가료중이며 운전사 최석규(47)씨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버스에 탄 승객들은 광주소재 담배제조공장의 간부진과 그들의 가족들이다.

"정치행위가 사회윤리에 어긋나면 종교인도 참견할 수 있어"
김추기경 기자회견

"최기식 신부의 구속문제등은 종교인의 양심과 법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문제였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순교자가 이 문제의 갈등으로 박해를 받았으나 이런 문제로 한국정부에 종교인의 특혜를 요청할 생각을 없다"고 김수환 추기경은 말했다.

김추기경은 토론토방문 마지막날인 3일 시내 하버캐슬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부구속문제등 현 한국정부와 종교인 문제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종교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종교인들은 정치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되나 정치행위가 사회윤리에 어긋난다면 종교인들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유엔군사령관 소환을 요구한 사회선교협의회 성명에 대해 "이번 성명은 반미적 행위가 아니다. 다만 한·미간의 관계가 종속관계보다 대등한 우방국의 위치를 찾자는 문제"라고 말한 후 한국정부의 인권개선책에 대해 "몇가지 재판에서 보듯이 일부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대치상황 때문에 국민의 기본인권과 기본자유가 유보돼야 하는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해도 좋을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토론토 한인천주교회 회관 낙성식 집전차 28일 도착했다가 3일 하오 3시 뉴욕으로 향했다. 김추기경은 뉴욕·워싱턴·미네아폴리스등의 한인교계를 돌본 후 5월 중순경 서울로 귀임 예정이다.

기자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중인 김수환 추기경.

기자회견 요지

—종교인의 사회참여 문제—

종교인이나 정치가의 위치가 달라 서로간에 간섭할 수는 없으나 종교인이 국법을 어겨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정치행위가 양심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난다면 종교인들은 참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최기식신부 구속사건—

최신부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안했다고 본다. 신문에 약간 과장보도했으나 신부가 방화사건같은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

—사회선교협의회 성명사건—

이 협의회는 일부신부를 포함한 신·구교 지도자들의 단체이다. 이것이 공식적기관은 아니다. 이들의 성명서 목적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반미행위를 조장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우방국가이다.대등한 우방국가로서 몇몇 인사들의 행위에 섭섭함을 표시했을 뿐이다.

—민주주의와 한국적 특수상황 아래 민주주의 제한—

한국에는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은 인정한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의 자유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자유의 본질내지 기본인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 서구사회의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최선의 이데올로기라고 보나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광주사태를 국내에서 지켜본 문제—

일부에서 주장하는 2천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해됐다는 보도는 과장인 것 같다. 광주사태 직후 광주에 가서 알아보니 천주교신자 2만명중 4명이 희생됐다고 한다. 실질적 사망자 통계는 힘드나 1~2천명이 희생됐다는 것은 과장표현인 것같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무자는
361-3428(B), 447-1374(R) : 장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모여 들때는 선뜻 잡을수 없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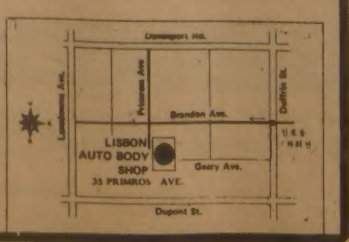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부동산
1) Business를 살때는 Lease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 경기가 나쁠때는 먹는 장사가 좋겠읍니다.
3) 먹는 장사중에서도 Donuts Business가 좋겠읍니다.
4) 왜냐하면 첫째, Lease가 길고, 손님을 직접 대할 필요가 없고 또 수입이 좋으니까요.
5) 24시간 영업시간을 두려워마십시요.
Grocery Business의 영업시간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225-1204, 222-7863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완전 BODY WORK!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종합보험

김 흥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인가톨릭회관 개관식(좌로부터 김문고·고종옥신부·김수환추기경·허영식 제씨. 중앙 뒤는 정토마스 뉴욕퀸즈성당 주임신부) 〈사진 : 김종환기자〉

가톨릭회관 낙성식 김추기경 환갑파티

토론토한인천주교회가 북미주 한인가톨릭계 최초로 60여만달러의 단독회관을 마련(Dundas East×Parliament, Tor.), 지난 1일 하오3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준공·축성식을 가졌다.

토론토 방문 3일째인 김추기경은 1일정오 총영사관에서 오찬회를 가진후 회관축성식에 참석, 해외신자들의 손으로 회관을 마련한 것을 치하·격려했다.

이날 축성식을 위해 300여 신도들과 뉴욕의 정토마스신부, 런던의 김분신부도 참석했다.

이날 개관한 가톨릭회관은 1층에 본당사무실, 한맘신용조합, 식당, 사제실, 보관실, 휴게실, 관리자 아파트, 침실 2, 교실 5방, 도서실, 2층에 소성당, 회의실(교실겸용) 6방, 침실 4, 거실, 지하실은 대강당, 기능교실, 창고 3, 바등을 가진 다목적 건물이다.

한편 2일의 회관준공기념미사는 하오1시~3시 김추기경 집전·설교로 진행, 1,200여명 신자가 쎄인폴성당을 꽉 메웠다.

이 미사 설교에서 김추기경은 이민자의 행복의 길은 신앙으로 채워진다는 내용의 인생의 길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날밤 토론토·프린스호텔에서 하오6~9시반에 열린 김추기경 환영파티에는 350명의 참가자가 모였으며, 음력5월에 있을 김추기경 환갑축하도 겸해 거행됐다.

토론토한인천주교 고종옥신부의 환영·축사, 축하케익 자르기, 김문고 사목위원장 선창의 축배에 이어 디너파티가 있었으며, 각단체 간부들의 큰절을 겸한 예물증정, 성가대(안병원 지휘·김진숙 반주)의 선구자, 고향의 봄, 해피버스데이등 합창과 환갑축시 낭송(박옥선), 한인교향악단 멤버중 김진원군등 3명의 바이얼린·첼로 트리오가 시낭송때 배경음악을 연주하고 나서 "꽃불" 합주를 했으며, 무용가 김용순씨의 고전무용 "살풀이" 독무도 있었다.

답사에서 김추기경은 '서울서 환갑잔치를 해줄까 봐 피해서 여행왔는데 해외에서 환갑축하를 받을 줄이야 뜻밖"이라면서 기습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곧 이어 사회자 피세영씨는 "추기경께서 국내잔치보다 해외에서 이렇게 백인들을 하인으로 쓰면서(호텔식당 종업원들을 지칭) 대접받으시니 더 큰 축하를 받으시는 셈"이라고 받아 만장의 웃음을 자아냈다.

3일 아침 기자회견을 가진 김추기경은 뉴욕을 향해 3시 토론토공항을 출발했다.

중국7천년전 사이언스·센터에서

온타리오·사이언스·센터가 3년간의 치밀한 준비끝에 마련한 중국문물전시 "중국, 7천년의 발견(China, 7,000 Years Of Discoving)"전이 1일 개장됐다.

10월31일까지 계속될 전시회의 입장료는 성인 $5.00, 학생·노인 $2.50, 어린이 $1.25이며 가족티켓은 $10.00이다.

전시시간은 주중에 아침 10시부터 저녁6시까지 금, 토일은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이다.

전시물중 세계 최초로 발명된 중국의 화약을 비롯한 500여점의 천문, 의학, 인쇄, 제지직물법 제품이며 토론토 중국인 코뮤니티가 제공하는 연예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사이언스·센터 전화는 429-4100이다.

장거리 전화 요금 또 인상

7월1일부터 캐나다 전역 및 미국 각지의 장거리 전화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월1일부터 기본요금을 올린 벨·캐나다는 캐나다내 장거리요금은 5.7%, 미국과의 통화는 5.9%씩 올릴것을 캐나다 라디오·TV 전신위(CRTC)에 건의했다.

주택 매매 활발 평균가 $94,050

토론토 부동산위원회(TREB)는 메트로·토론토의 주택판매경기가 또다시 붐을 일으키지 시작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기록적인 붐을 일으킨 메트로 부동산경기는 4월중 2,034채의 주택매매를 기록했고 평균매매가는 $94,050였다.

활발한 聖經번역作業

美성경사회統計 千7백39개 言語로 出版됐다고

미국교단은 복음을 전파하는 매개체인 성경번역사업에 상당히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성경사회(American Bible Society)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성경은 1천7백39개 언어및 방언으로 번역출판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매2주마다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고 있다.

성경번역 속도도 빨라져, 성경번역단체인 와이클리프그룹경우 신약성경을 1백개언어로 번역하는데 1934년부터 시작 80년까지 46년이 걸렸으나 83년까지는 2배번째의 번역성경판을 출판하게 된다.

성경배부수 또한 부쩍 증가, 10년전만해도 미국및 유럽연합성경사회(UBS)는 매년 5천만권의 성경책을 배부했으나 81년도에는 이 숫자가 무려 5억권으로 증가했다.

기독교탄압국가에서의 번역사업도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산국가중 현재 12개국가에서 번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6월에는 ABC의 번역전문가인 유진·나이다박사가 중공을 방문 남경에서 진행중인 성경번역사업을 본격적인 제도로 올릴예정이다.

이렇듯 교계의 폭넓은 활동으로 세계언어중 97%인 1,739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 되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소수민족언어의 번역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련의 타드지크어, 아프리카 차드공화국의 음바이 모이살라, 미국남부지방의 인디안 티와 방언등이 그것이다.

세계의 언어중 성경번역이 안된 언어는 몇개인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1950년도에 성경번역가인 에델 윌리스와 메리 베네트는 앞으로 번역해야할 언어는 2천개정도 남아 있다고 말했었는데 그이후로 다 완성되고 수백개 정도의 특수한 언어가 남아 있는것으로 집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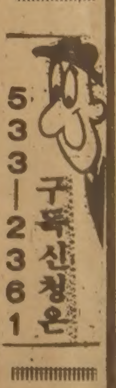
그러나 뉴기니아경우 한나라에서만 7백개의 색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상황을 모두 합하면 남아있는 언어수는 2천5백내지 3천개로 불어난다.

한편 번역사업은 주로 선교사들이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요즘에는 그 추세가 바뀌어 본토인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

나이다박사는 1943년도에 ABC에 가입했을때 번역중 75%가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95%정도를 본토인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번역작업은 보람있는 직업이지만 그리만만한것은 아니다.

현재 ABS와 UBS는 초교파적으로 번역사업을 하고 있지만 루터란성경번역회 및 다른 교파들은 자기의 교파를 은근히 강조하여 번역하고 있다.



공 고

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는 본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양로원(Nursing home)에 산재하여 계신 연로하신 어른들을 한곳으로 모시기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언어의 장벽, 환경의 이질감, 음식의 차이로 적절히 받으서야할 대우도 못받고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한 양로원으로 모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던중 온타리오주정부 사회부와 보건부의 호의적인 협조에 힘입어 아래와 같이 1차적인 기초조사를 하고저 하오니 저희들 취지에 찬동하시고 양로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하기주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양로원명및 주소 :
입원일자 :
가족성명및 주소 :
전 화 :
연락주실곳 :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C/O J. H. CHUN 6042 PADDLE RD. MISS. ONT.
(416) 826-6664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천 중 환 · 이사장 김 명 규

민원서류 대폭 축소

총영사관, 행정간소화방침

교포들의 민원사항중 재외공관으로 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건수가 지난 15일부터 대폭축소 되었다.

과거 교포들의 민원서류, 영사확인서류종류는 무려 1백50건이었으나 이번 축소조치로 31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행정간소화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로 영사확인사항은 일반초청자와 연수계약서, 재외국민등록완료증, 재직증명서등 모두 31건으로 축소됐다. 이중 초청장은 공증을 받으면 영사확인이 필요없다고 토론토총영사관은 밝혔다.

다음은 4월15일부터 실시된 영사확인서류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다.

1)초청및 연수관계-▲초청장▲연수계약서

2)경제관계-▲합작회사계약서▲수수료계약 또는 스폰서계약서(Agent Agreement)▲지사확누보고서▲공사계약서▲공사내용변경서▲하청불허서▲낙찰통지서▲공사준공▲생산국정부가 발행한 제조품목허가서

3)취업관계-▲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개별취업자에 한함)▲근로자사망보고서

4)재외국민관계-▲재외국민등록완료증▲국적취득외인서▲임주권취득사실외인서▲친가승계수사실외인서▲농민외확인서

5)재산및 기증관계-▲재산반입▲기증사실

6)선박및 선원관계-▲외국선주와의 최초고용계약서▲용선계약서▲선박양도및 양수계약서

7)소송및 상속관계-▲소송위임▲상속위임▲법정대리인선정(후견인선정)▲인감증명서발급위임

8)취학및 체재관계-▲국외체재복적인정증명서(재학증명서)▲전출아동학적서류

불교인구 1,100만명 기독교는 1,000만명

최근 몇년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급성장, 천주교 150만, 신교850만의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으나 아직 불교가 한국 제1의 종교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75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인 음력4월 초파일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 했으며 금년에도 이날을 기해 전국의 1,019명의 모범수를 가석방시켰다.

◆최은경- 한국에서 10년간 의상디자인을 공부했다는 최씨는 지난 5월3일 불루어 한인상가의 코스모스숙녀복가게를 인수했다 이민온지 9년이 최씨는 '내 적성에 맞는 가게를 찾았다. 교민에게 봉사하게된 기회를 갖게 된것에 감사한다"고

전화는 530-1870

결혼축하

신랑 : 김홍인씨 장남 욱신군
신부 : 김성규씨 2녀 정수
때 : 5월8일(토) 하오3시
곳 : 한인천주교회(83 Power St. Tor)
주례 : 고종옥신부
피로연 : Saiwoo 식당 3층 (하오6시30분)(130 Dundas St. W.)

新種密輸 유행

入國때 고급外製品 "휴대품" 申告 出國땐 빈손…旅券 明記欄 지우는

〈서울본사전화〉 로렉스시계, 보석류, 골프세트, 전자제품등 고급외제상품을 휴대반입형식으로 들여와 시중에서 비싼값에 처분한 후 여권에 적혀있는 표시란을 지우거나 국내에서 비슷한 가짜물건으로 바꾸어 출국하는 묘한 밀수까지 나타났다.

이같은 신종밀수는 주로 한국을 자주찾는 사업가또는 관광객들에게 유행하고 있는데 파세대상품목을 출국할때 다시 갖고 나간다는 재수출조건으로 여권에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후 관세를 물지않고 반입할수 있는 현행 관세법의 미묘한 빈틈을 이용한 것이다.

김포세관은 이들이 주로 서울과 부산등 주요도시의 외국상품 거래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위해 노련한 세관원을 배치하고 보석감정시세까지 가추고있지만 하루 3~5천여명이 입·출국하기 때문에, 모두 적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폴랜드 대규모 노동절데모

"솔리대리티만세"

(와르샤와)메이·데이즉 노동절인 1일을 맞아 폴랜드·국민 5만여명이 공산당기를 불태우고 솔리대리티·만세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게엄선포 4개월여인 폴랜드의 국민들은 수도인와르샤와 전역에서 시가행진을 벌인 데 이어 솔리대리티(전국자유노조)가 창시된 그댄스크 해안도시에서도 5만명 이상이 노골적인 반정부 데모를 벌였다.

데모의 규모로보아 솔리대리티에 대한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가 확인된 반면 군정당국에는 상당한위협으로 보여진다.

◆최전선—전투태세를 완료한 아르헨티나군인들이 영국기습에 대비, 군사훈련중 발포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코모도로·리바다비아— 〉

男性들 여전히 衝動的

美男女大學生대상 性反應 조사결과

〈탈라하시, 플로리다〉 여성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생면부지의 남성과의 성관계를 거절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이 승락만 하면 언제든지 잠자리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 심리학 조교수 러셀 클락은 지난3년동안의 남녀대학생들을 상대로 비교연구한 결과 낯선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남녀가 각기 이런 전통적인 자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클락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성으로부터 잠자리를 같이하자는 제의를 받았을때 남성은 75%가 응낙한 반면, 여성은 아무도 승낙하지 않았다.

이제의를 거절한 남성들은 결혼했거나 애인이 있는 상태였다.

반면에 데이트를 하자는 제의에는 남녀모두 반이상이 승락했으며, 아파트초대에는 여성중 6%만이 남자는 69%가 승락했다.

이에따라 클락은 아직도 이사회는 남성들이 성을 오락적으로 취급하는것은 용납하나 여성들에게는 비난을 가하고 있는것으로 분석했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여권운동가들이 반발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모집요항

한인민족상 수상후보를 모집하오니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문
(가) 예술상: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사진등 예술분야에서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 학술상: 학술적 저술·발명, 발견·심포지움등 학계·교육계에서 공이 큰 인사.
(다) 봉사상: 공적, 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희생적 봉사, 그 결과가 뛰어난 인물.
(라) 공로상: 한글교육·체육진흥등 기타 여러면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체육특기등에 공로가 큰 인사.

2. 수 상 자 격
(가) 캐나다 거주자 (한인)
(나) 비한인(외국인)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선전, 한인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인물.
(다) 개인 또는 단체

3. 추 천 방 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아래 양식에 의해 해당자를 추천하되, 5월15일이내에 본사 필착토록 해주실 것.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5명이 필요함.

1982년 4월 일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대상자또는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추 천 내 용 : (별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요망)
추천인(단체) :
추천인주소·전화번호 :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아스피린이 主犯이라고

어린이들에게 크게 위태로운「라이스·신드롬」

아스피린이, 심하면 목숨도 앗아가는 어린이질병 「라이스 신드롬」의 발병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의학계는 어린이 아스피린 복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6년동안 연방질병퇴치센터(CDC)는 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국민에게 위험경고를 했으나, 라이스신드롬케어스가 계속 늘어나자 의학계는 정부측에 강력한 행정조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소아과협회는 2만3천명의 회원의사들에게 자체경고를 하기로 결정 월간학술지인 「소아과」 6월호에 감기나 수두창을 앓는 어린이들에게는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이 함유된 약을 처방치 말도록 권고하는 글을 싣는다.

이 추천서는 감기나 수두창을 앓던 어린이들중 아스피린을 먹고 라이스 신드롬에 걸린 1백37명의 어린이병세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연방질병퇴치센터에서 발간한 연구서와 내용이 비슷하다.

그외에도 랄프 네이더스 건강연구단체가 미국공중보건협회는 각각 FDA(연방식품및 약품관리국)에 어린이 아스피린 경고문을 부착시키도록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만일 30일까지 반응이 없으면 법적조처를 취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CDC에 따르면 매년 6백명내지 1천2백명의 어린이들에게 발생되는 라이스 신드롬의 증상은 갑자기 고열이나고 구토, 두통이 계속되며 심하면 경련및 혼수상태에 까지 빠지게 된다.

매년 환자중 25% 또는 3백명이 사망하며, 나머지는 뇌장애로 평생고생을 하게 된다.

올해들어서는 4월 현재 14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연간 5천만달러 상당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어린이아스피린제약회사는 라이스 신드롬과 아스피린이 연관이 있다는 학설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FDA 대변인은 CDC의 경고를 따르기전에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 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中共국내여객기 추락

乘客등 112名 떼죽음

廣東을 출발 길린성으로 가던중에

〈북경 〉2명의 미국인을 포함 총 1백12명의 승객을 태운 중공 CAAC항공사 소속 제트여객기가 26일 길린성 남부지방을 비행하던중 근처산에 추락, 탑승객전원이 사망했다고 관영 신화사통신이 보도했다.

추락한 비행기는 영국제 트라이멘트 3발제트여객기로 사고당시 광동을 출발 길린성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망한 미국인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린슬리 그레시트(68)부부로 중공을 여행중 이었다.

신화사통신은 추락사고만 보도했을뿐 사고원인이나 외국인탑승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홍콩의 비공식소식통에 따르면 이 비행기에는 50명의 홍콩인과 3~4명의 일본인 여행자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탈주－29일 자신의 차로 도망해가는 부손의 TV뉴스담당자에게 망치가 던져지고 있으나(사진윗쪽) 다행히 아무도 부상은 입지않았다고. TV뉴스담당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논란이 되고있는 크라이스·미러를·힐링·센터와 교회멤버들. 〈미러룰밸리·아리조나 〉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㉜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렇습니다. 도덕적 훈련과 인격수양을 통해 조물주이신 하느님 앞에 나설 피조물로서의 본연의위치를 인간들에게 되찾아주자는 것입니다. 조물주앞에 나선 인간의 위치. 그것은 허무 자체가 아니겠읍니까? 나라는 존재는본래 무(無)가 아니었읍니까? 그런데 인간이 지닌 이러한 존재성적 허무의식에서 하느님과 인간간의 관계를정립하는 종교관이 있게되며, 동시에 이 종교관은 도덕적일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7절에서 말씀하신,「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것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양 자랑합니까?」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 뜻하는 겸손을 실천하는 인격수양을 우선적으로 쌓아야 한다고 전 보고 있읍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은혜를 은혜다웁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신앙이 우리생활안에 충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이 신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기간이었다면 한 인간의 초보적인 신앙교육을위해서도 도덕적 훈련과 인격수양을 위한 일정한 교육기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잘 알겠소. 젊은 신부다운 당신의 그 신념을 축복하오. 그러나 모든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되오. 그리고 모든 신앙교육에 있어서 하느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첫째로 키워주어야만 하오. 신부인 우리들이하는 모든일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슨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것은 다름아닌 감사하는 방법뿐이오. 그리고 사제직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오.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고 감사할때 사람들은당신이 주장하는 도덕생활과 인격수양이 저절로 뒤따르게 될꺼요”

“저는 동양의 종교인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받고자라서 그런지 인간의 허무의식에서 출발하는 도덕적생활과 겸손이란 덕에 바탕을둔 인격수양이 하느님을 찾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방법이 그릇되다고는 말하지 않소. 동양종교를잘 모르는 나지만, 동양의 종교는 인간측에서 하느님이란 절대신을 찾아나선 이성(理性)의 종교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아온 신앙의 종교라오. 이점에서 동양인의 종교관과 서양인의 종교관이 다르며, 따라서 종교생활면에 있어서 동양인인당신네들은 인간의 노력을더 강조하게 되고, 우리 서양인들은 하느님의 은혜를더 주장하게 되었던거요. 바로 여기에 당신과 나사이에방법론적인 차이가 있게되는데, 나는 당신의 그러한 방법을 탓하거나 거부하지않겠소.”

“잘 알겠읍니다. 본당신부님. 제가 현재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가 자라온 생활과정의 영향만은 어쩔수 없읍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혜에 제노력을 바쳐 사제생활의 완성을 지향해나아가겠읍니다.”

“나는 당신네 동양신부들을 부러워 하오. 당신네들은 우리들 서양신부들이 경험못한 또 다른면의 종교성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오? 태오신부는 이곳에서 동양과 서양의종교성을 조화시킬수 있는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나는 믿고있소. 그럴수 있도록 당신을 사랑하는 선배신부로서 당신을 축복하오”

“감사합니다. 본당신부님. 그런데 사실은 오늘 부리노문제에 대해서 신부님과 상의하러 왔읍니다. 요즘그는 놀라울만치 많은면에변화돼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그에게 우리 가톨릭적 신심생활의 중심인 미사에참례시켜주고 싶은데 좋은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화제를 바꿔 내가 의도한 부리노문제로 돌아가고 싶었다.

“당신의 그의견에 나도 동감인데, 부리노가 주일미사에 나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읍니까? 하지만 회심한 부리노의 신앙에 적절한 도움을 줘야합니다.”

“물론! 그런데 어떤 도움을 줄수있다고 태오신부는 생각하오?”

“예를들면, 부리노네 집에서 가정미사라도 지낼수 없을까 생각됩니다. 부리노 가족이 주일미사에 나올수 없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가정미사란 것이 없었다. 신심활동을 위한 특수한 조건에서만 정식축성된 제대가 없는 곳에서 미사를 지낼 수는 있었으나, 그것도 주교의 허가없이는 불가능했었다. 그래서 가정미사란 상상도 못할 때였다.

“가정미사라고?”

“네, 가정미사가 가능해 다면 그의 집에서 미사를 지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가족이 미사참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읍니까? 밤중에 부리노 가족만 초청해다 미사 지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읍니까?….”

“가정미사라면 주교청의 허가가 있어야겠는데, 어디 그것이 가능하겠소? 공의회후 예전면에 많은 쇄신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친절, 열기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三國志 367

글·高羽榮 그림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깜빡 죽여주는 해장국 이 드디어 나타났읍니다.

◐개시일 : 4월29일(목)부터
◐가격 : 5불 50
정말 맛있는것 같애요…
맛으로 해결해 드리는 ─〈순대도 있읍니다〉
한국관 대표 : 나옥녀
•영업시간• 오전9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美문화원放火사건 관련
15명 拘束起訴

崔基植신부 保安法(편의제공)추가
1명不拘束·6명 起訴유예

金鉉奬·文富軾등 放火致死傷도 적용

【釜山=崔秉植기자】부산지검 공안부는 29일 미문화원방화및 불온전단 살포사건과관련, 文富軾(23·釜山高神大4년제적) 金鉉奬(32·무직) 崔基植신부(40·가톨릭原州교구교육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범인은닉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국교회사회선교회회계 李昌馥씨(43)를 보안법위반및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단살포범을 숨겨준 金成玉양(21·부산약대4년)등 6명을 기소유예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에서 범인은닉혐의로 구속된 崔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편의제공)을 추가로 적용했다.

◇崔基植신부 ◇金鉉奬 ◇文富軾 ◇金恩淑

검찰은 기소장에서 崔신부가 金鉉奬이 光州사태의 주모자인것과 부산사건과 관련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사실을 알면서도 은신및 숙식을 제공하는한편 도피자금으로 50만원을 주었으며 지난2일 상오7시께 金을 연행하려는 수사기관원에게 신병인도를 거부하는등 국가보안법·7조 1항 (찬양고무등), 9조2항(편의제공)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범 文富軾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위한 민중혁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81년3월15일~82년2월초까지 부산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식화교육을 시키는한편 자신도 81년12월16일부터 22일사이 原州교육원에서 金鉉奬으로부터 의식화교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文은 이념서클 「새벽」을 결성토록해 「북침준비완료」라고 쓴 현수막을 만들어 시내에 부착토록했고 李美玉(高神大의예과2년)등에게 3월18일 미문화원을 방화토록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金鉉奬은 사회주의체제 구축을 위해 부산의 文富軾등 전국 5개지역에 6개그룹 27명의 청년을 선정, 지하의식과 활동을 배후조정해왔으며 81년1월9일부터 8월18일까지 원주교육원에서 20회에걸쳐 청년및 대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켰는가하면 文등에게 유인물살포에 「북침준비완료」라는문구를 삽입토록 강조한혐의를 받고있다.

李美玉은 문화원에 휘발유살포, 崔仁順과 金志禧는 휘발유에 점화, 朴貞美는 방화예비음모, 金華石은 불온전단 제작, 崔忠彦과 朴願植은 국도극장앞 전단살포, 柳承烈은 유나백화점앞 전단살포 혐의이다.

또 文吉煥 金英愛 李昌馥 許珍洙등 4명은 범인도피등 혐의를 각각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전단살포범을 숨겨준 金成玉양등 6명은 조사과정에서 개전의정이 뚜렷하여 기소유예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문화원방화및 불온전단 살포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22명중 15명은 구속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기소됐으며 나머지 6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全대통령 "多品目 少量수출도 誠意를" "大企業 代金결제 신속히"

貿易振興회의 報告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29일 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무역진흥月例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大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관해 일부대기업들 가운데는 小기업이 納品할때 代金결제를 신속히 해주지 않는등 부조리가 없지않다고 지적, 앞으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에대한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일부기업들 중에는 금액이적고 少量이거나 작은 품목이라고 해서 주문을받고라도 수출을 輕視하는 경향이있다』고 지적하고 『多品目少量수출에도 성의를갖고 노력함으로써 수출기업의 底邊을 확대해야 수출경쟁에서 이겨나갈수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과거에는 수출이 잘안될경우 손쉬운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못했으나 이제는 품질개선, 기술혁신, 原價절감등을 통해 국제경쟁을 강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제전쟁에서 이겨나갈수있다고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 회의가끝난뒤 회의장에 전시된 국내외운동용구및 레저용품을 약30분간 살피고 『국제적으로 公認을 받은 국산운동용구에 대해서는 국내경기에서 사용토록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서도 사용토록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林相辰씨(30·한국冶金공업대표)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을주었다.

◇全대통령이 무역진흥 월례회의가 끝난뒤 회의장에 전시된 국내외운동용구등을 살피고있다.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國民不安 씻는데 힘을"

盧內務취임, 당부

盧泰愚 신임내무부장관은 29일 경찰을비롯한 20만내무공무원들은 새로태어난 기분으로 근무에임해 이번 宜寧사고가남긴 역사의 오점을씻고 희생자가족과 국민들의불안감을씻는데 혼신의힘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盧장관은이날상오10시30분 내무부회의실에서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말하고 3대부정심리추방, 의식개혁의 구현으로 신뢰받고 봉사하는 내무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두겠다고 밝히고 내무공무원은 무사명·무책임·무소신·무기력의 4무 추방운동을벌여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을해치는 여하한행위도 용납치않는 국가관이 투철한공무원이 되라고 강조했다.

林 民韓총무 「警察制度 개혁委」설치 제의

林鍾基民韓黨총무는29일宜寧경찰관총기亂射사건과관련 『劉彰順국무총리를 비롯, 徐永福국방장관등 관련장관들은 인책사퇴해야한다는 뜻을 李鍾贊 民正黨총무에게 전달했으며 30일열리는 당무회의에서 이를 黨論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하오 日本방문을마치고 귀국한 林총무는 총리이하 관련장관들의 引責과함께 임시국회의 즉각 소집, 관련常委의 소집을 요구하는한편 경찰자체의근본적인改善策을 강구하기위한 「경찰제도改革위원회」(假稱)를 국회내에설치할것을 民正黨에제의했다.

오늘 內務委

국회는 30일상오 10시 內務委를열고 정부측으로 부터 宜寧경찰관 총기 亂射사건에 대한 보고를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國會소집 再論키로 與野총무회담

與野는 29일하오 총무회담을열고 野黨측이 요구한임시국회소집문제는 30일 열리는 內務委의 결과를 보고난뒤再論키로했다.

盧內務등에 任命狀

全斗煥 대통령은 29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임 盧泰愚내무, 李源京체육부장관과 金聖培 서울특별시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宜寧사건 調査班 세防衛兵도 拘束방침

【宜寧=임시취재반】宜寧사건 정부합동조사반(반장 崔相曄대검형사2부장)은 29일 상오11시 이사건과 관련, 宜寧 경찰서장 崔在澗 경정(57), 宮柳지서장 許鳴叔 경사(44), 차석 金鎭宇경장(35)등 3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당시宮柳지서에 근무했던 방위병 朴相贊(24)、金海群(23)、成普鉉(23)등 3명도 군수사기관에서 초소이탈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반은 앞으로 증거보강 수사와 아울러 사건당시 상황실장이었던 文鎭萬경보과장등 나머지 관련자에대한 혐의사실 추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崔반장은 禹순경이 범행당시 정신적 광란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禹순경의 뇌조직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으나 감정이 불가능해 의학적 해명은 하지못했다고 덧붙였다.

崔반장은 이번수사에서 禹순경의 채용이나 인사불만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수사의 목적이 이번 사건의 형사책임소재 규명에 있었다고 말했다.

英, 오늘(하오8시) 포클랜드 海空봉쇄

無斷통과 飛機·선박 공격

【런던28日UPI=聯合】영국은 30일하오8시(한국시간)를 기해 포클랜드군도주변2백해리의 해상과 공중에대해 전면 해공봉쇄를 단행한다고 28일 영국방성이 발표했다.

영국방성은 마거리트·대처영수상이 긴급각의를 소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포클랜드 군도 주변2백해리해역의 해상과 공중에 대한 해공봉쇄 조치와 함께 포클랜드군도수도인 포트스탠리공항의 폐쇄조치를 발표하고 봉쇄구역을 영국정부의 승인없이 통과하는 아르헨티나및 제3국의 모든 민간및 군용선박과 항공기가 영해군의 공격을 받을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르헨티나군사정부는 포클랜드군도의 공방전이 24시간내지 48시간내에 발발할것으로 예상하며 아르헨티나에 접근중인 40여척의 영국기동함대에 『선제공격』을 가할 선택권을 배제하지않는다고 말하고 적절한 순간에 공격의 결단을 내릴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 "48時間內 攻防戰예상"

英잠수工作兵 90명 西포클랜드 上陸說

【뉴욕28日UPI=聯合】美행정부관리들은 약90명의 영국잠수공작병들이 3일전 서포클랜드섬에 상륙했을것으로 믿고있다고 CBS방송이 28일저녁뉴스에서 보도했다.

CBS방송은 이들 잠수병들이 아르헨티나군의 병력배치상황과 군사정보를 입수하기위한 정찰임무를 띠고있다고 보도했다.

日, 經協규모 公式전달

야나기야審議官, 盧外務에 사꾸라우찌外相 親書도

일본정부는 29일 韓日經協의 규모와 조건등 그동안 일본정부내에서 조정된 일본측의 공식代案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來韓한 야나기야·겐스께(柳谷謙介) 일본외무성 심의관은 하오4시 마에다(前田利一) 駐韓대사와 함께 외무부로 盧信永장관을방문, 한국의 60억달러 經協요구에대해 일본정부의 代案과 經協문제와 관련한 사꾸라우찌(櫻內) 외상의 親書를 전달했다.

마에다대사는 이날 1시간 50분간 盧장관과 要談을마친뒤 『일본정부관계부처간에 자체조정한 經協案의 내용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經協규모와 조건등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일본 제2차案은 그동안 일본이 보도해온 정부개발원조(ODA) 13억~15억달러를 포함한 40억달러외에 플러스 알파로 모일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60억달러 全額을 ODA로해야한다는 종래의입장을 거듭밝힌것으로 알려져 韓日經協문제는 또다시 고비를 맞게된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나기야심의관은 요담이 끝난뒤 『아직 결론을내리지 못한상태』라고 말하고 『30일 한국측 경제부처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나눈뒤다시 협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본측이 제시한 代案이 우리측의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經協타결을 위한 5월3~5일간의 양국外相회담에서 어려움이 있을것같다고 전했다.

이날 要談에는 孔魯明외무부 제1차관보, 崔東鎭 亞洲局장과 일본측에서 야나이(柳井)駐韓공사등이 배석했다.

◇일본정부의「經協案보따리」를들고 來韓한 야나기야(柳谷謙介) 外務省심의관(左)이 29일하오 마에다(前田利一)駐韓대사와 함께 외무부장관실로 들어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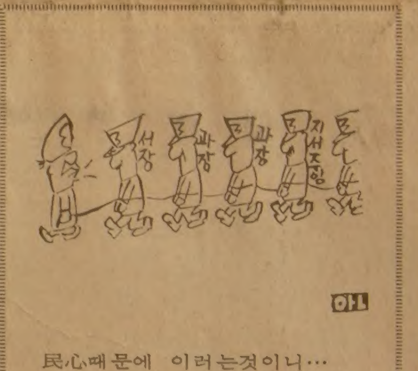
헤이그·아르헨外相 協商 재개

【워싱턴28日AP=聯合】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과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 아르헨티나외상은 28일 워싱턴에서 포클랜드 위기의 평화적 타결을위한 새로운협상을 개시했다.

이날 회담은 美정부가 영국과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는 국무성코뮤니케가 나온후 이뤄진 것이다.

코뮤니케는 새제안들이 앞서 프란시스·핌 英외상에게 제시된것과는 『약간 다』른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社会漫評



民心때문에 이러는것이니… 잠시만 참도록!

地平線

27일 새벽 5시 宜寧郡 宮柳우체국장 張世銘씨(50)는 밤새 마음을 휩쓸던 총소리가 멎자,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카운터 너머 금고 앞에 숙직중이던 집배원 田鐘碩씨(37)가 배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그 앞에 흩어진 탄창이 2개. ▼옆으로 돌아 교환실―문을 열어 보고 張국장은 더욱 놀랐다. 당직교환원 田銀淑양(23)은 피로범벅이 된 교환대 앞에 쓰러져 숨졌다. 함께 근무하던 朴環淑양(19)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교환대의 플러그는 宜寧우체국에 꽂힌채였다. 50m 밖에서 들린 살인마 禹範坤(27)순경의 첫번 총소리가 분명히 들렸을텐데―張국장은 위험을 알고도 자리를지킨 그들의 책임감앞에 고개를숙였다. ▼현장 모양으로, 그때 상황은 이렇게 再構成해볼 수가 있다. 지서를 뛰쳐 나온 禹순경은 바로 옆 예비군무기고에서 공포를 쏘며 수류탄을 뺏고, 쏠아서 나오다 행인 1명을 사살했다. 그길로 우체국으로 달려간 禹순경은 집배원 田씨를 쏘아죽이고 카운터를 뛰어 넘어 교환실로 뛰어든다. 조사결과 추정은 첫번 총성이 9시30분, 두교환원의 죽음은 9시51~56분께. ▼이 추정은 사건의 첫신고자 李出來씨(52)의 증언으로 뒷받침된다. 총소리가 연거푸 나자, 그는 경찰을 부르려고 자석식 전화기의 크랭크를 미친듯이 돌렸다. 그때 교환양의 상냥한 목소리 대신 신음 소리가 들렸다. 한동안 급하게 부르는사이 宜寧우체국이 나왔다. 李씨가 전화를 건것은 9시50분께였다는 진술이다. 이것이 교환대의 플러그가 宜寧우체국에 꽂혀있었던 이유다. ▼禹순경의 난동이 시작되었을 때, 지서는 물론 비어 있었다. 지서장은 관내를 벗어나 온천장에 있었다. 경찰서장은 있어야할 곳에 없었다. 총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이 대피했다. 그날밤 제 자리를 지킨 사람은 우체국원들뿐이었던 셈이다. 두 교환원은 총격을 받고도, 마지막 혼신의 기력을 다해 신고전화를 중계하고 숨졌다. ▼그렇게 전달된 첫 신고에 경찰이 민활하게 반응했던들, 사건의 희생자가 이토록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멍뚫린 치안태세는 그 갸륵한 두 처녀교환원의 책임감마저 짓밟은 꼴이 되었다. 안타까움과 감동속에, 시체말 한 마디를 생각한다. 그들이야말로 『훈장감』이다. 어둡기만한 사건 소식속에, 그들은 분명 『銅像감』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S 보석상
o각종보석
o다이아몬드 품질보장
o최저가격
o뉴 디자인
o보석개조 교환매매
o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교민증가 1만명 서명운동

경애하는 5만 교포여러분! 지금 총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1만명 서명운동은 일석수조의 이익을 가져오는 범교포적인 운동입니다. 한국은 많은이민을내어보내니 좋고, 캐나다는 선택적으로 우수한 이민을 받게되니 좋고, 교포사회는 교포의 증가로 모든 단체와 기업이 활기를 띠게되니 환영할 일입니다.

비록 캐나다는 실업율이 높다 할지라도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매년 13만명 이상의 이민을 해외에서 받아드립니다. 이와같은 높은 숫자는 우리 앞에 열린 문입니다. 만명서명운동은 이 열린문을 한-카 양국의 이익과 교포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펴나가는 애족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마련된 지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하여 보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캐나다총연합회 드림 —

보낼곳 : 각 지역 한인회장
또는 Dr. KI SONG OH
P. O. Box 584, Cote St. Luc, Montreal, P. Q. H4N 2Z2

성명	주소	서명

大決戰 눈앞에…

英·아르헨 양국首腦의 속셈은

5주째 접어든 포클랜드(말비나스) 위기는 30일밤 8시(한국시간)를 기해 막바지 고비에 들어선다。영국은 그시각부터 포클랜드주변 2백해리 군사수역에 海空양면 봉쇄령이 발동된다고 선언했고 아르헨티나는 이에맞서 黃色경계령을 내려 전국을 전시동원체제아래 놓았다。영국의 대처수상,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 대통령은 각각 어떤상황에서 한치의양보도 거부한채 군사대결로 치닫고 있는가。두 사령탑의 입장과 동정을 살펴본다。

英國

總選겨냥 人氣만회노려

56년 수에즈事件되살려 海洋國명예 걸어

포클랜드사태가 전쟁으로 번지느냐 아니면 협상으로 타결되느냐 하는和戰의 선택권을 쥔 마거릿·대처 영국수상。「鐵의女人」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대처수상은 영국정부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클랜드사태에 대해 초강경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대처의 뇌리를 떠나지않는 것은 지난 56년 영국이 이집트한테 당한 수에즈운하사건。

당시 영국수상이었던 보수당의 이든경은 낫세르이집트 대통령의 무력을 앞세운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막지못해 정권을 내놓아야만 했다。

이든경은 정권만 내놓은게 아니라「大英帝國」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불명예까지 함께 뒤집어써야만 했다。

대처가 지금 처해있는입장도 수에즈운하 사건때의 이든경과 비슷하다。

만약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무력강점에 무릎을 꿇을경우 대처의 정치생명은 끝장일뿐더러 해양대국임을 자부하는 영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된다。

야당들은 포클랜드사태 초기부터 대처의 사임을요구하고 나섰고 대처는 내각의 가장 중요한자리인외상을 캐링턴경에서 핌으로 교체했다。

『만약 영국이 포클랜드에서 물러선다면 지브롤터나 벨리제등 영국이 아직까지 가지고있는 식민지에 대해 무슨 말을 할수있단 말인가』라는 대처의 반문에는 포클랜드사태를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 취할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보는입장이 반영돼있다。

하지만 대처가 취할수 있는 강경책은 제한된 섬격을 벗어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우선 들수있는게 대처는 포클랜드사태에 무력을 행사한다해도 流血사태만은 피하려 하고있다。

포클랜드에는 1천8백여명의 영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1만3천여명의 아르헨티나군이 수비에 임하고 있다。

피를 흘리지않는 무력개입을 하자면 영국군의 작전은 지극히 제한될것이다。

영국본토에서 1만2천8백㎞나 떨어져있어 보급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점과 남반구에는 겨울이 다가오고있어 악천후와 싸워야한다는점도 고려에 넣어야한다。

이러한 영국의 사정을잘 알고 있는 대처이지만 강경노선의 견지외에는 별다른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처의 인기는 포클랜드사태이전에 3백만실업자와 2년째 마이너스성장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영국병」으로 계속 인기가 하락하고 있던 판이었다。

창당 1년째를 맞고있는 영국사민당(SDP)의 승승장구의 기세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을 위협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처는 오는 84년 총선을 앞두고있다。

현재 영국의 여론조사는 이추세로 갈경우 84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하고 자유당과 연합한 사민당이 집권 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대처는 이번 포클랜드사태에서 강경책을 주도함으로써「영국의 잔·다르크」가 되고자하는 숨은 야심을 가지고있다。

심야에 비상각의를 소집해 전략을 숙의하고 영국인의 단결을 계속 호소함으로써 2차대전을 지휘한 처칠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하고있다。

야당인 노동당에서 조차 대처의 강경책을 견제하고 나설 정도이다。

마이클·푸트 노동당당수는 대처에게 포클랜드사태를 유엔에 이관시켜 협상을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처는 막무가내다。

『무력으로 본때를 보여주는것은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다루는 최선책이 될수도 있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경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있다。

로마교황이 포클랜드사태의 평화적해결을 촉구하는 전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대처는 이에대해 답전조차 치지않고있다。이러한 대처의 전략은 어느정도 맞아들어간것 같다。

대처는 지나친 강경책을 고집하여 하원에서는 몰리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기대이상의 지지를 받고있으니까。

【李炳圭기자】

◇1982년의 처칠。〃나는 제발 전쟁으로까지 번지지않기 바랍니다。하지만 누가 압니까?〃

아르헨

리오條約 발동안돼 굴복하면 退任불가피

經濟위기로 戰爭 힘없어

『아르헨티나旗는 포클랜드군도에서 영원히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22일 포클랜드군도를 찾아 장병들의전투태세를 시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백83㎝나 되는 건장한 전투복차림의 체구에는「강직한 군인」이란인상이 물씬풍긴다。

포클랜드사태해결을 위해 미국무장관헤이그가 갈티에리를 찾았을 때 그는 『장군對 장군으로 얘기합시다』라고 첫마디를 꺼낼만큼 직선적 인물이다。

정력적이고 행동력있는 군인 그의 정치적 개성은 오늘의 포클랜드분쟁을 몰고 오기에 충분했다。

갈티에리가 포클랜드를 다녀간 이틀후인 24일 영국함대는 사우드 조지아島에 상륙, 정면도전을 해왔다。이때 갈티에리 대통령은 협상거부를 선언, 영국과 일전을 해보겠다는결의를 보였다。시시각각으로 포클랜드군도로 함진해오고있는 60여척의 영국기동함대는 더욱 위협적으로느껴지고 있으며 영국이 30일하오8시(한국시간)을 기해 포클랜드군도의 해상·공중봉쇄를 선언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영국의 제안을 들어주느냐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28일전 포클랜드군도를 점령했을 때 갈티에리가예상했던 상황과는 너무나차이가 있다。처음 포클랜드탈환을 환호하던 군중의열기는 차츰 식어 27일에는 5만인파가『말비나스(포클랜드)는 좋지만 독재는 싫다。미국도 싫다』는 반정부·反英·反美구호를외쳐대기 시작했다。

OAS(미주기구)에기대를 걸어봤지만 28일열린 OAS특별외상회담에서는 포클랜드군도에대한 아르헨티나주권을 인정한다는 결의안만을 채택했을뿐 리오조약의 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남미사태에서 발을 맞춰오던미국도전면전위기가 고조될수록 영국편을 들고 있다。

또 3백억달러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아르헨티나로서는 전쟁을 치를만한 재정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하던 무기조달원도 영국의 압력으로 막혀버리고 말았다。

더우기 군부대 소장파장군및 대령급 강경론자들은 협상과정에서 갈티에리가 보인 연약한 자세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갈티에리는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완벽한 권한을 누리고 있지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도체제인 3人군사평의회의 일원으로서 모조공군참모총장과 아나야해군참모총장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난7년간 아르헨티나군사정권은 反페론운동으로「국가재편성작업」을벌였으나 사실상 실패, 오늘의 경제파탄을 가져옴으로써 아르헨티나국민들에게 페론망령은 되살아나고 있다。결국 갈티에리는 페론이 될수없다는 것을 포클랜드사태를 통해 느끼고있다。

갈티에리는 포클랜드침공3일전만해도 부에노스아이레스거리를 메웠던 10만명의 반정부시위가 포클랜드탈환이란 선물을 국민에게 안겨주면 쉽게 가라앉으리라 생각했었다。

포클랜드침공이 완전한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갈티에리의 퇴진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갈티에리는 전군에「황색경보」를 내리고는 있지만 협상에의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것 같다。그러나우세한 공군력을 동원, 선제공격을 가할 수있는 선택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崔海雲기자】

◇페론을 닮고싶은 「군인중의 군인」 〃아르헨티나旗는 포클랜드군도에서 영원히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越南패망7年 오늘의 베트남

經濟파탄

華僑탄압 기반마비

5개년計劃실패…피난민 줄 안끊겨

지도층도 自中之亂…비판소리 높아

지난 3월27일 제5차베트남공산당대회에서 행한 수상 팜·반·동의 연설은越南패망후 7년이 지난 오늘의 베트남생활상을 잘대변하고 있다。

팜·반·동은 이 연설에서 『인민、노동자、공무원들이 어려운 생활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부정현상이 사라지지 않고있다』고 실토했다。

대체로 5년에 한번씩열리는것이 관례로 돼있는각국 공산당대회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쇼로 시종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지난번의 베트남공산당대회는 국제공산주의운동사상 유례를 찾아볼수없을만큼 부정적발언과 자가비판이 격렬했던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5년 4월30일 베트남을 무력통일한 하노이정권은 다음해12월 제4차공산당대회에서 야심적인 제2차 5개년계획(76년~81년)을 채택,「新生베트남」을 내외에 과시했으나 그 施政결과는 오산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남부에 대한 급진사회주의화 정책과 화교탄압등으로 남부의 풍요한 경제기반이 마비된데다 계속된 악천후로 2차5개년계획은 목표달성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참담한결과를 드러냈다。「보트·피플」로 대변되는 베트남難民의대열은 아직도 끝을보이지않고있고 캄보디아침공과 中·越전쟁은「민족해방운동의 旗手」를 자처하던 하노이정권을 고립시켰다。이런 失政과 이에따른 사회혼란은 공산당 지도층사이에서도 공공연히 비관의소리가 나올만큼 악화돼 있는것같다。

인사이드

당기관지「난단」의 편집장이면서 공산당대변인을 겸하고 있는「호앙·톤」은 최근「난단」紙를 통해 『전쟁때는 먹을 것도 충분하고 무엇이나 성공적이었는데 오히려 평화시에 배가 고프고실패하는일 뿐이다』라고 한탄하고있다。

이런 難局을 타개하기위해 베트남은이번 5차당대회를 계기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걸쳐대담한 노선전환을 할것으로 관측됐었다。그러나 당대회결과는경제·인사면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을뿐 76년당대회때 확립된 레·두안체제를 재확인하는데 그친것으로나타났다。

5차당대회에서 채택된 제3차 5개년계획(82년~87년)은 식량과 소비물자의 증산에 중점을 두고 성장목표도 GNP年 4·5~6%, 농업생산6~7% 공업생산 4~5%로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2차5개년계획 실패에 따른 관료주의의폐해、暗시장의 번성、노동의욕의 저하와 西方측의원조중지등 베트남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모순은 베트남정권의 低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재건을 어렵게만 들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노이정권은 새5개년계획에서 공장、농장의 보상금제도실시와 소규모 개인경영 허용등 부분적으로 자유화정책을 삽입한「다각적 경제구조를도입」(팜·반·동연설)、노동자들의 의욕을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하지만 이역시 GNP의 30~40%를 차지하는 군사비지출과 사회주의경제 자체가 안고있는 한계성때문에 큰실효를 거두기 어려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朴贊式기자】

◇아르헨軍의 훈련 아르헨티나軍의 공정대원들이 27일 코모도로 리바다비아항 부근에서 장애물 돌파훈련을 하고있다。이사진은 28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개됐다。【코모도로 리바다비아28日AP電送=聯合】

對이 支援中斷결의안통과

유엔總會 美반대에도불구

【유엔本部28日AP=聯合】유엔총회는 28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평화애호국가가아니다」고 규탄하는한편 모든국가들에대해 對이스라엘 군사·경제·정치적 지원을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86대20·기권3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2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합병했을때도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했던 유엔총회는 이날의「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 특별총회」에서 26개 제3세계및 공산국가가 제출한 이결의안을 구두표결로 채택、팔레스타인인들의자주권을 재확인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안보리의 이스라엘점령지 조사위원단을 입국시켜주도록 촉구했다。

이 占領지구 팔人들 騷擾

【예루살렘28日AP=聯合】이스라엘독립34주년기념일인 28일 이스라엘점령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소요사태가 발생、이스라엘군부대가 시위군중에게 발포함으로써 최소한 20명의 아랍주민이 부상한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스라엘군당국은 이날 소요진압에 나선 이스라엘군부대가 강제해산에실패하자 시위군중을 향해 발포、자발리아와 나블루스에서만 각각 4명과 5명의 아랍주민이 부상했다고밝히고 아랍인 폭도1명이 가자지구 자발리아난민수용소를 순찰하던 이스라엘군 순찰차량에 돌멩이와 소이탄을 투척、이스라엘군병사 4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온두라스 旅客機 左翼게릴라 被拉

【테구시갈파(온두라스)28日UPI=聯合】미국인14명을 포함 승객및승무원48명을 태운 온두라스국영항공사소속 국내여객기1대가 좌익게릴라 3명에 의해 28일 공중납치돼 테구시갈파의 톤콘틴공항에 강제착륙됐다고 온두라스당국이 밝혔다。

반미적인 로렌조·젤라야인민혁명군대원들이라고 밝힌 이납치범들은 대시7여객기가 이곳 동북1백76㎞의 카리브해연안항구도시 라시에라를 이륙、동북쪽 1백58㎞의 공업도시 산 페드로 술라를향해 20분쯤비행했을때 이 여객기를 납치하여 상오10시30분(현지시간) 테구시갈파공항까지 끌고왔다。

이들 납치범들은「행방불명된자」들과 수미상의 정치범들의 석방을요구하며 경찰과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태양열 發電機 開發경쟁 치열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있는 태양열발전기의 실용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확대되고있다。

29일 업계에따르면 金星通信·三星電子·光電子등 국내 7개태양열 발전기메이커들은 무인등대및 지방무선국등 전국의 60여개소에 태양열발전기를 설치한데이어 최근에는 金星通信이 남해및 서해도서지방의 50여개 무인등대에 유지비가 거의 안들고 수명이 반영구적인 태양열발전기를 오는 7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波、拘禁人士 1천명釋放

來2일 戒嚴완화 야간通禁 해제도

【바르샤바28日UPI=聯合】폴란드계엄당국은 오는2일을기해 지난12월13일 계엄선포당시 실시한 야간통금을포함한 대부분의 계엄규제조처를 해제함과 동시에 계엄하에 체포구금된 1천여명을석방할 것이라고 관영 PAP통신과 TV방송들이 28일보도했다。

이들 보도기관은 폴란드정부의 공식발표를 인용、이와함께 당국은 농민자유노조지도자 얀·쿨라즈를 이미 석방했으며 그에게 공산당의 자매단체인 통일농민당과 함께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를 포함한 주요노조지도자들은 이번 석방자들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바웬사의 부인이 말했다。

부활된 中共주석에 習仲勛·宋任窮물망

【홍콩28日=聯合】새로 부활될 중공의 국가주석직에는 중공의 당원로인 習仲勛과 宋任窮등 2명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공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국가주석직은 당초 중공의 실권자이며 당부주석인 鄧小平이 가장 유력시됐으나 그가 이미 당주석직과 수상직을 모두 사양했던 점으로 미루어 국가주석직역시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翁 후계자에 몬타제리 指目

【테헤란28日AFP=聯合】이란회교지도자 호메이니옹의 아들 호자톨레슬람·아마드·호메이니는 28일 이란의「정신적지도자」인 부친의 후계자로 故팔레비왕에 대항했던 호세인·알리·몬타제리(60)를 지목했다。

호자톨레슬람·호메이니와 같은 이란의 정치실력자가 호메이니옹 후계문제에 관해 확고히 자신의견해를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혁명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보통선거를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에의해 결정된다。

몬타제리는 팔레비 前왕정을 무너뜨리는데 주요역할을 했다。

메아리

越南패망 7년

1975년 4월30일은「사이공 최후의 날」이되었다。그 전날인 29일의 절박감을 한국일보특파원은 이렇게 打電해왔다。「사이공은 독안에 든 쥐와 같은 꼴이었다」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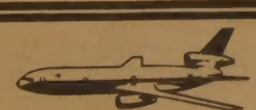
패망을 앞둔 월남인의 절망감을 그들 스스로의 입에서 얻어 볼수 있다。베트남 패망직후 우리나라의 한 월간지는 이런 수기를 소개했다。『敗者에겐 자비가 없다。색깔도 무늬도 없는 白旗만이 있을뿐이다。나는 白旗에 부수한 언어를 적고 싶다。우선 거기에「자유」란 말을 쓰고싶다。백기가 오르면 그 여백에 적겠다。이웃들에게, 숲속의 새와 들판의 황소들에게 까지도 자유와 사랑과 후회의 말을 적어 보내주리라』

지금 베트남엔 자유도 사랑도 없다。있다면「후회의 실상」뿐이다。공산월남의 현실은 지금 이 후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경제개발계획의 실패로 지난 8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1백60달러에 지나지 않았다。공산화직후 재난까지 겹쳐 식량난은 더 심각하다。79년부터 한사람에게 한달 9㎏씩 배급하던 식량을 5㎏으로 줄였다。어른 한사람이 적어도 15㎏은 있어야 살아갈수 있다。겨우「延命」한다는 참상을 눈으로 볼수 있을것 같다。

이것은 일반인의 경우라고 한다。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지식인 성직자 대학생등 반동으로 몰린 사람들은 하루 한끼로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이다。

보트·피플은 한때 難民의 대명사로 통했다。베트남을 탈출한 월남인들은 1백만명을 헤아린다。5만7천여명의 목숨을 잃고 1천5백억달러의 戰費를 쏟아넣었던 미국도 보트·피플엔 짜증을 냈다。그러니 바다의 難民들이 땅에 올라서도「국민대접」을 받게 될리도 없다。월남 패망의 원인은 두고 두고 꾸준히 구명 될줄 안다。국제정치라는 힘의 力學이 어떻게 작용했든 뼈아팠던 사실은「自中之亂」이었다。

이 惡夢의 교훈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들려진다。「적화통일전략」이라는 똑같은 凶計를 지닌 북괴의 움직임은 더욱 도발적으로 나타난다。눈앞에 敵을 둔 우리로서는 월남의 패망을 단순한 歷史의 한토막으로 받아 들일수 없다。월남은 자유와 평화를 자기 힘으로 지킬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 6004

R) 293- 9970

FIRST AUTO SERVICE

AUTO BODY SHOP

REPAIR

개업 3주년기념 특별 튜납세일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자 개업 3주년 특별기간을 설정해 아래와 같이 염가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5월1일~5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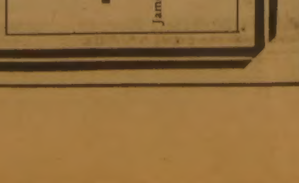
일반차량 : 8기통…$49.95

6기통…$42.95

4기통…$36. 95

※오일및 휠터 교환 류브케이숀 $16. 95

물론 엔진 샴푸도 포함함.



주소 : 1521 QUEEN ST. W.

☎ : B)532—0200, R)537—5830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37

朝鮮運送회사 취직

고향咸昌의 日人소개로 正社員에… 月85圓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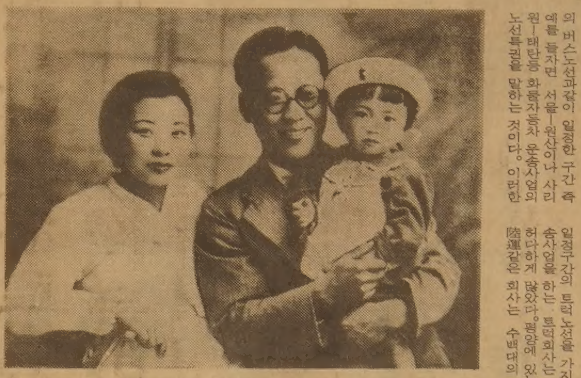
경성신사(京城神社), 그 많은 돌계단을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아침 저녁 서울시민들을 강제로 참배시키던 곳이다.

천황폐하의 무운장구와 일본국의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곳이다. 많은 한국사람들도 이 돌계단을 오르내렸다. 꿈먹은 벙어리처럼 끌려다니는 백의민족들의 울분은 입이 있어도 말한마디 못하던 시대다.

그 남산의 은행나무잎새들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가을날, 우연히도 내고향 咸昌에 사는 오가다(小方)라는 일인 청년을 만났다. 오가다부자는 내고향에서 오랫동안 정미소를 해온 사람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그도 나를 무척 좋아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남산 내리막길을 걸어오면서 한국학생들의 취직난을 얘기했다. 그때만해도 한국사람에는 대학출신이 그리 많지않아 선지 그는 나의 동경유학을 무척부러워하던 청년이다. 그는 문제없다면서 朝鮮郵船회사(현 해운공사)의 중역으로 있는 그의 친척 마스다(增田平八郎·현 대마도에 있는 쓰시마運送회사社長)씨를 소개하고 취직난의 사연을 얘기했다. 마스다씨는 쾌히 승낙하고 조선우선이나 조선운송(현大韓通運) 두곳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취직이 될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다. 당시 조선우선이나 조선운송에는 한국인 대학출신이 한사람도 없던때다. 마스다씨는 곧 조선운송의 중역으로 가니 같이 가자고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로 조선운송회사의 정사원으로 입사했다. 초봉은 85원이었다. 제국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는 87원, 사립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는 85원을 주었다. 월2원의 차별대우이기는 했으나 당시의 형편으로는 고급사원임에는 틀림없었다. 시골에 있는 처를 불러올리고 서대문 냉동(冷洞)에 전세집을 얻었다. 쌀 한가마니에 7원정도며,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금융조합이사로 부임되면 초급이 50원미만의 시대니까 90원가까운 월급이면 당시의 고급샐러리맨이다. 남산관에서의 답답했던 나날을 회상하면서 그런대로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서울의 소시민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역전에 있는 당시의 최신식 건물 가다쿠라(片倉)빌딩에 자리잡은 조선운송 자동차과의 유능사원으로 인정받은 것은 입사 수개월후다. 당시 조선운송은 엄청나게 비대해졌고, 그 세력을 몰아 한반도 전역에 산재한 트럭노선을 매입하기 시작하던 때다. 트럭노선이란 오늘의 버스노선과같이 일정한 구간 즉 예를 들자면 서울-원산이나 사리원-태탄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노선특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정구간의 트럭노선을 가지고 운송사업을 하는 트럭회사는 전국에 허다하게 많았다. 평양에 있는 平南陸運같은 회사는 수백대의 트럭을



◇1939년 조선운송회사에 근무할 당시의 필자. 아내와 장녀 善枝가 함께 포즈를 취했다.

事務능숙·免許證도있어 上司총애
40여日人제치고 路線買入 요원에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노선권리를 사들이는 것이 바로 사세확장이다. 물론 트럭과 기타 일체의 회사재산도 다 매입한다. 막대한 금액으로 노선권리를 사들이는 이사업은 전시하의 통제경제를 틈기위한 총독부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볼수있다.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 동양척식회사의 남과정책같은 것을 느끼곤 했다. 노선통제라는 미명과 통제경제라는구실로 전국의 노선권리를 강제로 매입하는 일종의 식민지착취사업같은 것이기도했다. 그런데 신설된 이자동차과에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일본인운전사 단한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관해 지식을 갖추고있고 거기다가 동경경시청면허증까지 획득한 내가 베테랑사원이 되는것은 어렵지 않았다. 마스다씨는 이회사의 중역이면서도 자동차과의 장을 겸임하고있었다. 고려해 사업적중요성을 고려해 자동차과 리들 능숙하게 해내는 나의 실력은 곧인정을 받았다. 40여명의 일본인 사원중에서 가장총애를 받았고 가장 뛰어난 사원으로 그실력이 인정된셈이다. 선망의 표적도 되었거니와질투의 대상도 되었다. 차체와 부품, 공구등의 정비보충, 매입등의 일에 골몰한 나를 마스다씨는 의외에도 노선매입요원으로발탁했다.

女子의 마음

엄마 학교 좀 오세요

뜰아래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꿀벌들이 아우성이다. 꼭 생존경쟁속의 무리들처럼 떼지어 춤을 춘다. 어느덧 6학년이 된 막내딸은 오늘도 엄마를 조른다. 『엄마도 학교에 좀오세요. 누구엄마는 덩굴화분을 가져오고 누구엄마는 무엇을 가져오고…』라며 딸아이는 『그런데 엄마는 왜안오시느냐』고 다그친다. 딸아이는 그동안 많이 참아주었었다. 엄마는 집[illegible]사람도없고 또집안일이 바빠서 학교에 못오는것으로 알고있다. 언제나 딸애가 학교에서 돌아와야 시장에라도 가기때문이다. 딸아이의 말을 듣고나서 나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학교를 기피하는 엄마가되었을까? 지금 高1이된 큰아이를 입학시키고 극성을 떨었던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나는 엄마나 모든일에 열심이었던가. 그때의 내가 진정훌륭한 엄마였을까, 자문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엄마의속을 모르는 딸애는 또 조른다. 『엄마, 비올때 오시면 되잖아요. 내 우산가지고 와서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엄마짝이에요.』 딸아이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꼭 만나뵙고인사를드리는것은 엄마의 도리일것이다. 그런데도망설여지기만하는 마음…. 父母와 교사가 언제부터 「거북한사이」가 되었을까, 서글픈마음이든다.

최영자

시어머님을 그리며

우리 가정의 최고 통치자는 시어머님이시다. 팔남매를 데리고 홀로되신어른이시니까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던 분이다. 큰아들에서부터 네째 아들까지는 벌써 결혼해서두서너명씩의 아들 딸을두었지만 다섯째, 여섯째아들 두명의 딸은아직미혼이다. 우리집은큰소리 한번 안나는 집안으로 소문나있다. 그만큼 어머님은 넓으신도량으로 「추장」처럼 가족을 다스려오셨다.

내가 서울로 이사온지3년이되고, 국민학교에 다니는 세아이를 키우며 소규모로 장사까지 하는걸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철따라 마늘, 고추, 메주, 고구마까지 보내주셨다.

엊그제는 허약한 둘째아이 약값이라고 몇만원을보내 주셨는데, 그돈을 받은 나는 어찌할줄을 몰랐다. 그렇지 않아도 대가족이 몰려 사시느라고 힘이드실텐데, 떠나간 자식들에게 까지 마음 써주시는 그 사랑이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나도 이다음에 시어머니가되면 그렇게할수 있을까하고 생각해봤지만, 자신이 없었다. 먼곳에서 시어머님의 사랑을 다시한번 느끼며 어머님을 본받아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안혜경

부산 美문화원放火사건등 關聯
崔基植신부등 公訴狀(요지)

◇구속기소

▲金鉉奬(32·무직)=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文富軾(23·高神大4년제적)=〃
▲柳承烈(22·釜山大 화학기계공학과3년)=〃
▲朴顧植(20·高神大의예과2년)=〃
▲金恩淑(24·〃기독교육학과4년)=〃
▲崔忠彦(20·〃외예과2년)=〃
▲李美玉(21·〃)=〃
▲崔寅純(21·釜山大약대)=〃
▲金志禧(22·釜山女大국어교육과3년)=〃
▲朴貞美(23·〃역사교육과4년)=〃
▲崔基植신부(40·천주교原州교구교육원장)=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
▲文吉煥(37·〃原州교육원보일러기사)=국가보안법위반·계엄법위반·범인은닉
▲金英愛(25·原州치악산서점주인)=〃
▲許珍洙(24·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청년회부회장)=〃
▲金華石(22·부산대2년제적)=계엄법위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李昌馥(43·한국교회사회선교회회계)=국가보안법위반·범인도피

◇기소유예

▲吳相根(28·가톨릭농민회 조사부원)=범인은닉
▲金成玉(21·釜山大약대4년)=〃
▲鄭仁幸(38·천주교原州교구사회개발상담원)=〃
▲文炳蘭(47·대성학원강사)=〃
▲李 境(37·회사원)=〃
▲黃一峯(24·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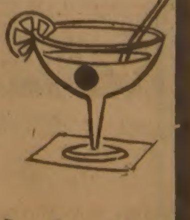
[illegible]

당신의 비지네스를 돕는 비데오
$EARN EXTRA CASH$
★빌려 드립니다
레스토랑, 술집, FAST FOOD, 버라이어티 스토아, 커피샾등 장소에 적합합니다.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429-3929
요코하마 코인 머쉰 LTD.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쟈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363-6077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영규 배

WEDDING DREAMS LTD.
결혼에 필요한 모든준비가 되어있읍니다. 들리기만 하십시요.
● 웨딩가운 TUXEDO렌트 또는 세일
● 사 진
● 초청장 주문
● 꽃어랜지
● 결혼케익등

811 DUNDAS ST. W.
365:0995

住民들 신뢰받으며「하루 33時間」 支署는「사랑방」… 薄俸 불만안해

僻地근무에 보람을 찾는다

——경남 宜寧경찰서 洛西지서 崔尚坤순경

벽지 경찰관—。무료와 불만이 쌓인끝에 전대미문의 살인극을 벌인 禹範坤순경을 연상한다면 큰잘못이다. 아무도 알아주지않는 두메산골에서 적은봉급과 싸워가며 「지팡인」의 보람에 살아가는 경찰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禹순경이 나온 바로 그 宜寧郡 산골에서도 그같은 집념의 일선경찰관들을 허다히 만날수있었던것은 따지고보면 놀랄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순박한 주민들의 생활에 깊이 뛰어들어 그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듣고 어루만지면서 벽지지서근무의 궁벽함과 고달픔을 훌륭히 이겨내고있었다。

「警察服」을 명예로…"모든 어려움 함께" 旅舘·다방없고 버스便은 하루에 세번

◇벽지근무에 큰보람을 느낀다는 洛西지서의 崔尚坤순경。

경남宜寧郡洛西面洛西지서 소속 崔尚坤순경(31)도 벽지에서 보람을 찾는 경찰관의 한사람。

洛西面은 경남의 구석이라는 宜寧郡내에서도 제일의오지로 꼽히는 두메로 洛東江과 접해있는 인구 1천7백여명에 면적 22·4㎢의 미니面。宜寧경찰서 산하에는 4개지서 파출소가있으나 유일하게 「벽지근무지」로돼있다。

출골 부산에서 살아온 崔순경이 지난78년11월 宜寧경찰서 유곡지서에 발령이 났을때 아직도 이런 산골이 있나싶었으나 지난해 6월4일 洛西지서로 전근됐을땐 한술더떠 「육지속의 낙도」라는 인상을 떨칠수가 없었다고했다。

자동차1대가 겨우 다닐수있는 황토고갯길 8㎞를넘어야 겨우 외지로나갈수 있고 사방이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싸여 영락없는 낙도였기때문이다。

이곳엔 버스도 하루3차례밖에들어오지않고 다방 여관은물론 접객업소가 한곳도없고 닷새에 한번 서는 장날조차 없는 곳。

崔순경은 부임며칠간은 암담한 생각이 들었으나 곧 마음을 바꿀수가 있었다。관내를돌고 지서를찾는 주민들을 만나는 사이 인심좋고 경치좋은 이마을이 마음에 들었다。崔순경의 일과는 아침 9시에 지서에 나가 하오6시까지 내근근무를 하고 곧장 관내순시에 들어가 다음날아침9시까지 33시간을 계속근무한후 하루를쉬는것으로돼있는데 실은 근무와휴식시간의 구별이 따로없다。

원래 지서정원은 5명이나 4명으로 운영되기때문에 이인원으로 민원처리, 관내순시, 호구조사, 신원조회, 방범순찰 업무를 쳇바퀴 돌듯 반복한다。

규정상 비번(非番)이 월 3회있으나 아직 한번도 쉬어본적이 없고 1년에 5일 휴가가있지만 그나마 비상걸리면 취소되는때가 많아 아직 이곳에온후론 이산골을빠져나가 본적이 없다。

崔순경이 근무하는 洛西지서는 말이 지서지 동네「사랑방」의 시설, 경찰관은 고사하고 오토바이 1대없고 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돈다。

지난78년11월 경찰에 발을디딘 崔순경이 받는 월급수령액은 모두 13만1천60원。이가운데는 벽지수당 7천원이 포함돼있다。이밖에 외근수당도 받는데 그액수는 하루 2백30원。

이돈으로 崔순경은 부인과 1남1녀를데리고 빠듯하게 살고있다。월세 5천원짜리 방을얻어 지난2월부터 가족들을 모두 불러다살고있는데 부인이 『다른 경찰관도 당신처럼 고생만하느냐』고 물으면 崔순경은 『그래도 나는 나은편』이라며 위로하고있다。

이같은 어려움속에서도 崔순경은 동네를 한바퀴돌면 외근때 주민들이 막걸리나 음료수를 권할때 모든피로가 가셔진다는것。

틈틈이 지서옆에 채소밭을 가꾸고 화초를 돌보는 崔순경은 『누가 좋은 조건속에서 근무하고 싶지않겠읍니까』면서도 『그러나 경찰복을 입은이상 경찰관의 본분을 지켜야할게 아니냐』고말했다。

洛西지서는 울타리 한건의 형사사건도 없는 유일한 지서。그만큼 주민들이경찰의 말을믿고 경찰은 신뢰를 심어준 탓인데 崔순경은 범죄가 없어진것이 더없는보람이라고 말했다。【宜寧=임시취재반】

10代 유괴범 체포

3백만원 건네던 現場서

국교1년생을 유괴, 3백만원을 받아 달아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하오1시15분께 서울江南區盤浦本洞반포국교앞육교에서 白모군(17·무직·부산釜山鎭區伽倻3洞)이 집으로 돌아가던 B국교1년4반 金眞子양(7·가명)에게 다가 『와삼촌이다。대공원으로 놀러가자』고 유인, 택시에태워 어린이 대공원으로데리고간뒤 金양의 집에 전화를걸어 3백만원을 요구, 이날하오4시15분까지 남산국립도서관정문에서 돈을 건네받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들렸다。

한편 경찰은 眞子양을 서울역앞 시계탑에서 찾았다。

暴行혐의자 支署에서亂動

면도칼로威脅 경관내쫓아

【廣州】29일하오2시께 경기廣州경찰서 實村지서에서 폭행혐의로 연행된 송기영씨(26·무직·경기廣州郡實村面昆池岩里436)등 4명이 면도칼과 각목을 휘둘러 소내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을 모두 밖으로몰아낸후 지서를 점거, 의자등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부리며 경찰과 1시간40분동안 대치극을 벌였다。

경찰은 기동타격대 10명을 출동시켜 각목을휘두르던 송씨의친구 3명은 검거했으나 송씨는 면도칼로 자신의 복부·가슴·목등을 마구 그어대며 자해행위를 하는바람에 접근을 못하다 이날하오3시40분께 붙잡았다。

송씨등은 이날 하오1시께 …에 의해 實村지서로 연행됐었다。

高麗大生4명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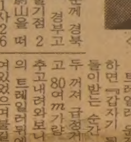
교내서 유인물뿌려

서울城北경찰서는 29일 李守奉군(21·高麗大사회학과2년) 白弘군(20·〃) 康英植(19·사학과2년) 李載宣군(21·〃)등 高麗大학생 4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15일 상오9시께 高麗大서관강의실과 여자화장실및 교양관강의실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제목의유인물 1백여장을 뿌려 반정부시위를 선동한 혐의다。【聯】

現代그룹 鄭周永회장 長男

鄭夢弼씨 輪禍燒死



◇鄭夢弼씨

29일 상오3시10분께 경북 金陵郡牙浦面大新洞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기점 2백36·4㎞)에서 蔚山을 떠나 서울로가던 서울1사2600호 그라나다 승용차(운전사 陳泰煥·23)가 앞서가던 대한통운소속 경북7아8536호 34톤 트레일러(운전사 李東俊·27)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불이났다。

이사고로 승용차에 타고있던 현대그룹 鄭周永회장의 장남 鄭夢弼씨(46·仁川제철사장)와 운전사陳씨등 2명이 불에타 숨졌다。

이날사고는 鄭씨의 그라나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추월하려다 트레일러뒷부분을 들이받는순간 연료탱크가폭발하면서 일어났는데 승용차는 불에타 뼈대만남았으며 鄭씨는 운전사바로 옆좌석에 반듯이 앉은채 숨져있었다。

트레일러 운전사 李씨에의하면 『갑자기 뒷부분에 차가 들이받는 순간 전조등이 모두 꺼져 규정속도를 하지 못해 80여m가량 서행, 차를멈추고 내려와보니 1·5m높이의 트레일러에 승용차가끼여있었으며 불길이 솟았다』는것。달려와 불을끄려했으나 鄭씨등 2명은 이미 숨진후였다。

이 트레일러는 포항제철에서 인천제철까지 30톤짜리철제빔을 싣고 65㎞의 속도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트레일러운전사 李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와 충돌직후 그라나다에 타고있던 鄭사장과 운전사陳씨가 문을열고 탈출하지 못한 이유등을 조사하고 있다。

鄭씨는 28일하오 仁川제철의 주강공장 확장문제를 蔚山중공업관계자들과 토의하기위해 내려갔다가 출근시간에 대기위해급히올라오던길에변을당했다。

鄭씨는 현대그룹 鄭周永회장의 8남1녀중 장남으로 延世大 경영대학원과 美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한후 74년 현대건설이사로 경영 일선에 참여, 78년 그룹산하의 동서산업사장, 81년 1월 고려화학 부사장등을 거친뒤 지난해8월 李明博현대건설사장 후임으로 인천제철 사장직을 맡아왔다。

유족으로는미망인李良子씨(40)와 恩姬(11) 有希(9)양등 2녀가 있다。

한편 현대그룹 鄭周永회장은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와 반도체및 항공기부품사업 계획을 미국측기업과 논의하기위해 지난 27일 출국, 5월14일께 귀국할예정인데 이날오 9시께 李明博현대건설사장이사고소식을전했다。

부소장 禁錮1년반

天帝淵현수교 사건宣告

【濟州】濟州지법형사단독부는 29일 中文天帝淵 현수교 붕괴사건 선고공판(재판장 梁東錫판사)에서 업무상과실 치사상혐의로 구속기소된 三星종합건설 현장부소장 吳成寅피고인(53·서울龍山구普光洞)에게 금고1년6개월을, 아이바 제작업체 京信로프 韓在珍피고인(37)에게 금고4년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설계및 공사감리책임을 맡은 東明기술공단 부사장 朴基潤피고인(55)에게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하청업자인 부광산업 대표 金承澤피고인(63)에게는 금고1년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聯】

"서툰理論바다나자 犯行후회"

美문화원 放火사건 수사결과 發表

담당檢事철야심문…공소장1백13장

【釜山=崔奎植기자】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는 29일하오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보도진 30여명이 모인가운데 金斗喜부산지검공안부장이 발표했다。

이자리에는 金부장검사외에 사건발생이후 계속 수사를 담당해왔던 崔炳國·張昌浩검사등 5명이 배석, 사건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했다。

이날 발표문은 지금까지검찰이 벌여온 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 22명에대한 수사결과와 이들에대한 조치로 나누어졌으며 기소요지도 공개됐다。

이날 기소된 16명의 공소장은 모두 1백13페이지로 사건의 중대성만큼이나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이를 2백자 원고지로 계산하면 모두 3백40장 정도。

이중 주범인 文富軾의 피의사실이 기록된 공소장은 18장이나돼 최고분량이었고 金鉉奬도 거의 비슷한 분량。

그동안 조사를 맡아온 검찰들은 심문기간동안 거의 뜬눈으로 밤을새워 기진맥진한 모습들이었다。

길두수부장검사를 비롯 崔검사등과 특수부에서 지원나온 辛光玉 李昊在검사등 6명의 담당검사가 22명의 피의자를 심문하느라 사건이발생한 지난3월18일부터 이날 기소되기까지 모두 43일동안 철야근무로 밤을 세웠다는 것。

특히 金부장검사는 심문기간동안 체중이 6㎏이나 줄었고 다른 검사들도 3~6㎏씩 빠졌다고。

방화조인 李美玉등 9명은 의식화 교육 과정에서 배운 설익은 이론들을 앞세워 오히려 검사들을 설득하려했다가 자기들의 허무맹랑한 지식이 곧 바다나자 고개를 숙인채 말문을 닫았다는 후문도 있다。

이들은 이날 대부분 순순히 자기들의 범행을 시인,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池주교 崔神父면회

가톨릭 原州교구장 池學淳주교가 30일에있을 부산가톨릭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기위해 29일 하오5시 부산에 도착했다。

池주교는 도착즉시 부산교도소 미결감에 수감중인 崔基植신부를 면회했다。池주교는 30일 하오2시에 있을 가톨릭센터 준공식에서 강론할 예정이다。

糧穀횡령범인 釜山서 잡아

【安東】속보=경북安東郡南先面梨泉洞 南先정미소 정부양곡 횡령사건을수사중인 安東경찰서는 29일 수배중인 정미소주인 배동욱씨(69)를 붙잡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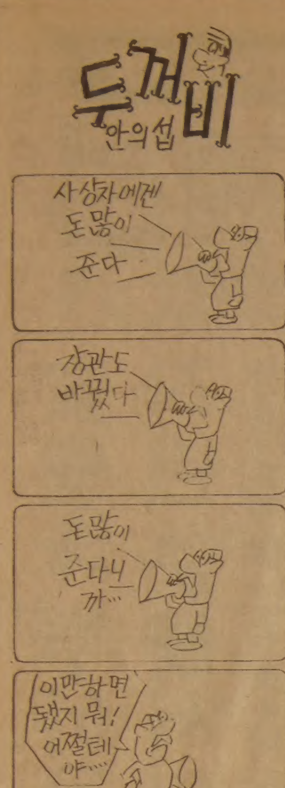
배씨 부자(父子)는 자기창고에 보관하던 정부양곡 60㎏들이 4천3백여 가마를 빼내 팔아먹은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는데 아버지 배씨는 지난 1월초 3백53가마(시가 7백13만원)를빼내 처분한 사실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아들배씨(42)에게 미루고있다。

배씨는 그동안 둘째아들이 살고있는 부산에 은신해있다가 28일검거됐다。

全北여성회관竣工

李順子여사 參席

【全州】全北 여성회관준공식이 29일하오3시 대통령영부인 李順子 여사를비롯, 趙澈權전북지사의 부인 崔나영여사등 관내 기관장부인, 여성단체장, 새마을부녀회대표, 여성지도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크라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宮柳支署長·次席수감

◇盧泰愚 내무부장관이 宜寧에 내려가 유족들을 위로하고있다。【宜寧=임시취재반】

【宜寧=임시취재반】釜山지검 晋州지청은 28일하오 宮柳지서장 許璟淳경사와 차석 金鎭宇경장등 2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지서장 許경사등은 이날하오7시30분께 자신들이 근무하던 宮柳지서앞에서 경남1가3386호 검은색 지프에실려 晋州교도소로 호송됐는데 지켜보던 주민50여명은 눈물을흘렸다。

한편 崔在淵 宜寧경찰서장과 文鎬萬정보과장등 비롯, 보안·경비과장등은 신병을확보, 계속 조사중이다。

盧內務, 宜寧현장에 報告받고 遺族위문

盧泰愚신임내무장관은 29일하오1시50분 헬기편으로 宜寧사건현장에 도착, 수습현황을 보고받은뒤 4개마을의 유가족들을 방문, 위로했다。

盧장관은 土谷里마을회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들러 분향한뒤 宮柳지서를 거쳐 宮柳면사무소에마련된 사건수습대책본부에서 본부장 崔鍾鎬경남지사로부터 사건현황을 보고받았다。

부상자들治療기간 2週~6개월까지

【馬山·晋州】宜寧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을입고 馬山고려병원과 晋州제일병원에 입원중인 34명의환자가운데 중환자 2명을제외하고 치료기간이 최고6개월에서 최저2주일이 걸릴것으로 밝혀졌다。

29일 馬山고려병원에 따르면 입원환자18명중 鄭정임군(11·宮柳국교4년)과 어머니 朴순덕씨(41·宮柳면坪村리)모자가 중환이고 金점재씨(39·鶴谷리)가 6개월의 최장기치료를요하는 중상을입었으며 3개월환자1명, 8주1명, 6주3명, 5주1명, 4주4명, 3주2명, 2주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晋州제일병원 입원부상자 16명은 5개월환자1명, 3개월2명, 2개월2명, 6주1명, 4주7명, 2주3명으로 밝혀졌다。

死亡者는 모두55명

한편 대책본부는 29일 사망자로 처리됐던 朴順德씨(40·여)가 朴順子란이름으로 馬山고려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사실이밝혀져 宜寧사건의 희생자는 禹순경을 제외하고 모두 55명이라고 고쳐 발표했다。

誠金접수 업무보다 郡廳직원 과로졸도

【宜寧=임시취재반】28일하오9시10분께 宜寧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성금접수 업무를보던 宜寧군청경리계장 李洛永씨(46)가 과로로 졸도했다。

李계장은 27일부터 宮柳面사무소에 설치된 대책본부에서 각계에서 보내온 위문금품 접수업무를 맡아왔다。

위문誠金 계속답지 宮柳面 참사에

宜寧사건 대책본부에는 위문성금이 계속답지, 29일 평화통일 釜山市자문위원 일동이 2백2만원을 기탁하는등 모두 2억9천4백여만원이 새로 접수됐다。

어제 23명 장례식

【宜寧】28일에 이어 29일에도 4개마을에서는 유가족들의 애도속에 장례행렬이 줄을 이었는데 인근주민들의 협조로 희생자23명의 장례를마쳤다。

우체국 자기앞手票 유통지역 대폭확대

체신부는 현재 전국34개시, 45개읍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추심없이 이용되던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위해 추심면제지역을 오는 5월1일부터 忠州, 三千浦市와 密陽, 善山邑등 8개市68개邑을 새로 추가, 확대실시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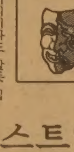
한국일보 533-2361

「위대한 寄贈」 조건없이 콩팥떼어준 無然스님

전남光州 無等山 깊은 곳에 암자를 지어놓고 사는 無然(사진·28)스님은 나이로쳐 이제 겨우 법랍(法臘) 4세인 이스님에게선 젊은 수도승같은 수줍음과 신선함이 그대로 엿보인다。

無然스님은 무슨 일인지 모른채 서울 法蓮寺 선배스님의命을 전해받고 서울로 올라왔다。法蓮寺쪽마루에 걸터앉은 그에게 『콩팥을 나눠 준이야기』를 물었다。無然스님은 대번에 머리를 한대맞은듯한 사람처럼 망연해진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여지 조심스럽게 지켜온 「순결」이 단박에 깨져버리기라도 할듯 입을 열기를 한참이나 망설인다。사진기자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깜짝 놀라며 굳이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을 수그렸다。



無然스님은 그 자체에게 콩팥을 나눠 준것이 요즘 사회에 흔한 「美談」이 못된다고 펄쩍뛴다。『그보단 어떤 행위에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임상 실험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자신이 어떤 포기행위를 거침없이 할수있고, 그 행위후에 자만심을 느끼지 않을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하나의 修行행위였다는 것이다。

"자기修行 테스트일뿐…美談아니다"

無然스님은 지난해 11월12일 서울 聖母병원에서 낯모르는 대학 졸업반 청년에게 콩팥 하나를 조건없이 나누어 주었다。종교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고 병원을 찾아간 그는 우연히도 환자와 같은 혈액형, 같은 타이프의 체질이었다。콩팥을 이식하는 데도 조직검사 등 60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데 스님은 그 60가지 조건이 거의 맞는 因緣이었다。콩팥을 나눠받은 그 청년은 이식후 많이 나아져 요즘은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無然스님은 인생의 덧없음에 부닺쳐 그것을 해결하려는 나머지 스물네살된해 가족 몰래 입산했다。가족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맛을 버리고 스님이 되는 것은 하나의 「위대한 포기」라고 생각한다。두루마기의 길고 넓은 옷고름을 바람에 날리며 시적시적 서울거리를 걸으면 「異邦人」으로서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종교는 內的으로 깊이 소유되는것이지 장식품처럼 휴대돼서는 안된다고 믿고있다。【禹桂淑기자】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급 매

* 사진식자기 1 대 *

※일본제 샤켄 모델 Spica-K
※자판 3 개
※성능 우수함

한국일보사 ☎: 533-2361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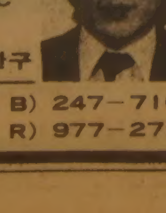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425-5656(Miss. 정)

9回末서 무너진 팽팽한 投手戰

北一、群山商 꺾다

安聖洙、투아웃 滿壘서 한방

작년 決勝서의 敗北를 설욕 1—0

대통령盃고교野球

信一은 東大門商꺾어 2—0

9회말 2死만루。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은 위기에서도 지난해 우승의 주역인 群山商2년 에이스 趙啓顯은 경원포볼로 만루를 만들며 자신만만하게 대적할 타자를 골랐다。상대는 北一高의 8번타수 安聖洙。安聖洙는 趙啓顯의 제4구 아웃코스 높은볼을 정확하게 맞추어 趙의 머리위로 넘겨버렸다。3루주자 張昌文이 홈을 밟아 결승1점을 올리는순간이었다。北一의 나인들은 1루로 달려나간 수훈선수 安聖洙를 둘러싸고 환희의춤을 추었다。패전투수 趙啓顯은 허리를 꺾은채 마운드에서 떠날줄 몰랐다。

대통령盃고교야구대회 4일째인 29일 北一高는 安聖洙의 뛰어난 피칭으로 지난해 대통령배우승팀 群山商高를 3안타로 누르고 9회말 2死후 투수 安聖洙의결승타로 황금의 결승점을 뽑아 1—0으로승리、지난해 결승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慶北高는 1회초 1번張文榮이 게임시작의 차임벨소리가 꺼지기도전에 光州一高투수 盧璟浩의 초구를 강타、중앙펜스를 넘기는 솔로호머로 기선을 제압、6회 6번 安國泰의 결승2타점 3루타등으로 호적수 光州一高를 4—2로 물리치고 8강에 합류했다。

信一高는 6·7회말 행운의 3敵失을 놓치지 않고 적시타로 득점에 연결、東大門商高를2—0으로물리치고北一高와함께8강에합류했다。

연승이나 설욕이냐。지난해 결승서 격돌했던 群山商과 北一의대결은 7회까지 숨막히는 0—0의투수전으로 계속됐다。群山商우승투수 趙啓顯、北一에이스 安聖洙 모두 좌우코너를 찌르는 예리한 직구와 커브로 타자들을 농락했다。

어디서도 승부처를 찾을수 없을만큼 탄탄하던 수비벽에 균열이 일기시작했다。

8회초 공격에나선 群山商 선두6번 高長亮의 땅볼을北一3루수가 놓쳐버렸고 포볼과 후속 땅볼로群山商은 2死1·3루의 호기를 마련。그러나 1번 白仁浩의 타구가불운하게도 1루수 라이너로잡혔다。群山商은 9회초에도 2포볼로 이룬2死1·3루의찬스서 6번 高長亮의 2점적시타로 홈에 뛰어들던 2루주자 趙啓顯이 포수에게 태그아웃당했다。

두차례의 큰위기를넘긴 北一은 9회말 선두3번 曺良根 4번 張昌文 1死후6번 金明柱가 각각 포볼로 나가 만루를 만들고 2死후 8번 安聖洙가 중전결승타를 날려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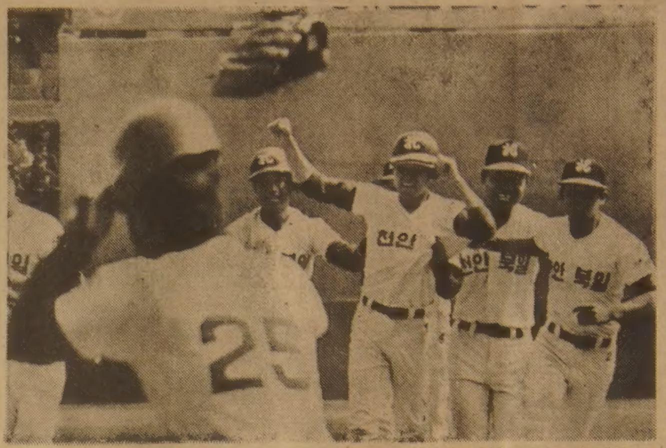
◇제4일2회전

군산상고	000	000	000	—0
북일고	000	000	001	—1
동대문상고	000	000	000	—0
신일고	000	001	10×	—2
경북고	100	002	010	—4
광주일고	100	000	100	—2

▲홈런=張文榮(1회·경북)

◇제3일 2회전

포철공고	000	001	101	—3
부산고	100	022	00×	—5



◇엇갈린喜悲…글러브는 空中으로 天安北一高와 群山商高의 대전。9회말 安聖洙의 결승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北一高선수들이 기뻐하는 반면 群山商선수들은 글러브를 공중으로 던지며 비통해하고있다。

亞洲여자농구 한국、鍊習하듯 말聯대파

2陣기용…여유있게 압도

142-42

첫出戰 마카오는 홍콩擊破

【東京=李基洪특파원】제9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ABC)이틀째 경기가 이곳 요요기(代代木)체육관에서 속행、A조의 한국은 말레이지아를 1백42—41로 대파하고 1승을 올렸다。한국은 약체 말레이지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전반서85—23으로 크게리드 했다。

이날 처녀출전의 마카오는 홍콩을 68—58로꺾어 B조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말레이지아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못했다。

경기가 시작 되자 한국은 올코트 프레싱을 전개、평균신장 1m68의 말레이지아를 초반부터 압도했다。

스타팅멤버는 朴贊淑 洪惠蘭 方信實 金福順 金和順。한국은 전반10분께 41—12、15분께 61—16으로 크게 점차를 벌렸다。

전반10분께 朴贊淑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포워드 金福順을 센터로 옮겼다。16분에는 洪惠蘭을 朴良桂로 교체했고 후반서는 2진을 고루 기용했다。

한국과 말레이지아 경기가 열린29일은 日本천황 탄생일로 공휴일이어서 요요기(代代木)체육관에는 4천여명의 관중들이 입장했다。

◇제2일전적

▲A 조

한국 142 (57 85 / 18 23) 41 말레이지아
(1승) (1승1패)

▲B 조

마카오 68 (35 33 / 30 28) 58 홍콩
(1승1패) (1패)

沃川서 고인돌·선돌群발견

길이 3백30cm짜리등 남녀상징많아

◇沃川郡 靑山面 校坪里의 고인돌。

충북沃川郡 靑城面·靑山面 일대 금강상류에서 선사시대 인류문화유적인 고인돌(支石墓)과 선돌(立石)이 발견돼 우리나라 巨石문화연구의 새로운 자료로 평가되고있다。

지난8~11일 사이에 충북대학교 문화재연구회(지도교수 李隆助)가 현지를 답사발견、확인한 이 巨石群은 靑山面 校坪·下西里에 고인돌 5기 선돌2기、靑城面長首·

巨石文化연구 새자료로 평가

弓村里에서 고인돌3기 선돌2기등 모두 고인돌8기 선돌6기。고인돌중 가장 큰것은 校坪里의 길이 3백30㎝ 너비2백㎝ 두께60㎝이며 선돌중 가장 큰 것은 下西里의 3백35×1백70×2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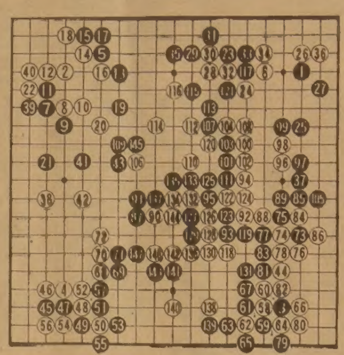
화강·편마암으로된 이 고인돌 덮개돌에는 거의가 둘레를 손질한 흔적이 뚜렷했으며 또 구멍을 뚫은것도 있었다。선돌은 6개가운데 여성을 상징한것이 4기、남성 상징이 2기였는데 長首里2호선돌은 남근(男根)비슷했다。

이번조사된 8기의 고인돌과 6기의 선돌이 위치한곳은 지난77년 大淸댐수몰지역 유적조사당시 발견된 6기의 고인돌과 13기의 선돌이있는 東二面石灘·靑馬里와 인접된곳으로 報靑川이 금강으로 빠지는 兩岸이다。

이로미뤄볼때 沃川의 금강상류지역이 우리나라의 巨石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것이 분명하며 아울러 고인돌의 두형식인 北方·南方式이 함께 자리잡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돼야할 『묘표식』과의 형식상의 차이、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에 연구가 접근될수 있을것같다。【姜升遠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8局總譜147手完黑不計勝 (각 5시간 덤 5집반)



白(4段)鄭壽鉉〈2勝4敗〉
黑(7段)河燦錫〈3勝2敗〉

전보에서 우변黑을 105로 가일수하자 바둑은 이미 더둘것도없이 黑의승리로 끝나고 있었다。

여기서 패국을 선언하려던 鄭4단은 그러나 『고작 100수남짓에서 던지기도 볼상사납다』는 생각인지 또혹은 『기왕이면 한바탕 크게싸우다 玉이되어 부서지겠다』는 결심에선지 좌우간 白106서부터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선 상변이 黑115이하 121로서 무너지고 다시 白122부터 물고늘어진 중앙은 黑147까지、비록 黑2점은 잡았지만 더이상 집모양을 만들지 못한채 뜻했던대로 대군이 덩어리져 散華했다。

그제야 돌을거둔 鄭4단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무례한 싸움에 대한 사과를 아울러했다。

河7段 樂勝局

이리하여 鄭4단은 순대국을 끝내고 다음期의 再起에 기대를 걸게되었고 河7단은 다음판에 시드組 殘落을 걸어야 하는데 과연어떨는지。

이바둑에서 특기할만한것은 우선 우상귀에 두어진 黑27이 보기드문 수단이어서 이어서 귀쪽에 『재미있는 형이다』는 중론이었다。

이뒤 白의 의문수와 실수를 차례로 찾아가보면 첫째 우상귀로 이수로는 좌하귀를 47자리에 걸친白44켜야했다。다음 白68로 정한수는 직접 142자리에 선착할 시기며 우변 白76은 77자리에빵따어 역시 黑세를 견제해야되었고 더우기 白84가 小食大失。이것으로 일거에 대세를 그르쳤다。黑은 45가만점했고 77이하83의조임수는 可謂驚嘆。한말로해서 黑이신나는 바둑이었다고 할까。【一凡】

스페인의 世界的 프로蹴球명문

바르셀로나팀 5월來韓

세계적인 프로축구의 명문 바르셀로나팀(스페인1부리그)이 한국에온다。

바르셀로나팀은 한국프로축구연맹초청으로 오는5월중순 내한、할렐루야팀과 서울(5월17일)大邱(20일)蘇州(23일)에서 3차례에 걸쳐 친선경기를 펼칠예정。

바르셀로나팀은 영국축구의 간판스타 케빈·키건과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등 세계의 톱스타들을 스카웃했던 명문이다。

한국·中共우승候補 泰킹스컵蹴球 전망

【방콕28日AP=聯】오는 5월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5회 킹스컵 축구대회에서는 한국과 中共이 지난대회 우승국인 泰國의 최대강적이 될것이라고 방콕의 축구전문가들이 분석했다。

8개국 9개팀이 참가하는 이번대회는 A·B 2개組로 나누어 예선리그를 벌이고 각각 상위3개팀이 다시 2차리그를 거쳐 A·B조 수위팀이 결승전을 벌인다。

홈그라운드의 泰國은 中共·네팔·싱가포르·필리핀등과 함께 A조에 속해있으며 한국은 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泰國B팀과 B조에 속해있다。

姜斗泰 맹활약

친선排球 아르헨을 셧아웃

姜斗泰가 주장노릇을 톡톡이했다。

아르헨티나남자배구대표팀 초청국제배구대회 3차전(29일·장충체)에서 한국대표팀은 姜斗泰 張允昌 文湧冠 李範柱 鄭義卓 李鍾敬등 베스트를 내세워 아르헨티나를 3—0으로 격파했다。

지난해 한때 슬럼프에 빠졌던 姜斗泰는 지난2월 새로 구성된 대표팀에서 주장이 된후 처음맞은 외국팀과의 경기서 놀라운 활약을했다。

상대블로킹이 붙으면 터치아웃시키고、정공법으로 승부하기곤란한 상황에서는 페인트로 처리하는등 공격과브로킹에서 두드러진성장을 보였다。

왼손잡이스타 張允昌은대학중간고사등으로 연습을제대로 못한탓인지 다소부진했으며 중앙속공수로 위치를굳혔던 柳重卓도 슬럼프에서아직벗어나지 못한듯 鄭義卓에게 자리를넘겨 주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한국남자대표팀과의 첫경기서 패배、방한전적 2승1패를 마크했다。

그러나 지난80년 처음우리나라를 방문、5전전패를 당했던 당시에 비해 놀라운 전력향상을 보여주었다。

孫永完씨의 지도를 받고있는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미국콜로라도)서 5위를 차지했을 당시 멤버를 주축으로하여、오픈공격은 물론 속공과 시간차공격등 동양식 배구를거의 마스터했다。

한국대표 3 (15 15 15 / 10 12 8) 0 아르헨티나

中共、臺灣팀招請 大學生 체육대회

【홍콩28日AP=聯】中共은 自由中國대학생들이 오는 8월10일부터 20일까지 北京에서 개최되는 제1회 中共대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해주도록 초청했다고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自由中國 아마추어스포츠연맹을 통해 自由中國대학스포츠연맹측에 전달한 이 초청장에서 北京에서 열리는 탁구·체조등 4개종목의 경기에 참가해줄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스포츠 商業化우려 IOC위원장

【베를린28日AP=聯】東獨을 방문중인 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8일 스포츠가 직업화되고 상업적으로 濫用되는경향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東獨공산당 제1서기및 국가평의회의장 에리히·호네커의 초청으로 東獨을 방문한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날 3일간의 방문일정을마친뒤 기자회견에서 특히 축구·육상·아이스하키·스키등 일부 종목의 프로化추세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西獨 바덴바덴 IOC회의가 프로선수들의 아마게임 참가를 불허하는 IOC헌장 규정을 재검토할것을 결정했던 사실에언급、『우리는 이 규정이 개정돼야 할것으로 믿고 있기는하나 어디까지나 국제스포츠연맹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뤄져야할 일』이라면서 이규정은 모든 연맹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약간씩 차이를 인정하여 융통성있게 운용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말했다。

流星의 賦 <371>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㉘

우희다수가는 화의를 하자는 계남의 청을 들어주지 못한 반면 신불과 그 부하들에겐 통감증을 발행하여 10일간을 기한으로 한성에 머무는 동안 그 자유를 제한하지 말도록 휘하부대에 통첩을 내렸다。

일견 관대한 이러한 처사는 홍계남과의 우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 그들의 점령하에 있는 한성이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안온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그들은 서울을 점령하자 양민을 보호한다는 방을 돌렸다。그리고 그들을 해치지 않는 한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다。통감을 주어 사대문의 출입을 자유화시키는 동시에 마음대로 상업에 종사하도록 했다。그런 까닭에 피난생활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속속 한성으로 몰려들었다。

신불과 그 부하가 먼저 한 일은 적의 배치와 분포였다。그런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총대장 우희다수가의 본거는 종묘(宗廟)、곧 남별궁(南別宮)으로 옮겼다。

그의 막료 단후수(但后守)、포후수(浦後守)、하원대마수(阿遠對馬守)는 소공동。

석전삼성(石田三成)은 명예동(明禮洞)즉 명동。

대곡길계(大谷吉繼)는 묵사동。

증전장성(增田長盛)은 주자동。

이상 세사람은 이른바 수길의 삼봉행(三奉行)으로서 수길 정권(秀吉政權)의 권력자들이다。

전야장강(前野長康)은 호현동(好賢洞)、지금의 회현동。

가등광태(加藤光泰)는 장흥고동(長興庫洞)、지금의 내자동。

풍전수가리(豊前守家利)회현동의 정사용가(鄭士龍家)。

부천기이수(富川紀伊守)우희다좌경량(宇喜田左京亮)화방조병위(花房助兵衛)명석소두수중(明石掃頭守重)강원병고수(江原兵庫守)등은 정동。

장반기이수(長盤紀伊守)는 서학동(西學洞)、지금의 태평로。

명석우근조(明石右近助)는 수각동。

화방지마개지지(花房志摩介職之)는 정동의 계림군가(桂林君家)。

부천현번윤(富川玄番允)은 미장동。

그리고 이들이 한성내에서 장악하고 있는 병사의 수는 약1만。한성 외곽에 있는 수가 약 2만。

그들이 이렇게 민가를 찾아든데는 임금이 서울을 떠난 즉시 난민들이 궁성에 불을 질러 도무지 거처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불과 그부하는 이어 화약의 저장장소를 찾았다。

그결과 성내 성외로 9개소에 나누어 화약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불은 성내에 있는 화약고는 이를 태워 없애기로하고 훔쳐낼 대상으로는 주교동(舟橋洞)에 있는 창고로 정했다。주교동은 지금의 서울 역사와 청파동사이를 말한다。

거기서 한강 나루터까지 약 3마정의 거리、화약고의 파수꾼은 약 백명가량이고 나루터의 분견소까지 적병의 배치가 없었다。

대강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후 신불은 부왜반역자(附倭叛逆者)들의 이름과 집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느날 신불이 남별궁으로 찾아가서 우희다에게 면회를 청했다。일전 가지고온 홍계남의 서신에 대한 답서를 받고자 한다는 것과 계남으로부터 우희다에게 보내는 선물이 도착하였으므로 그것을 전해야겠다는것이 면회요청의 이유였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9>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明暗 ㉝

인재는 말을 하다말고 피식 웃고말았다。그는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게 정직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아무 필요없이 취미삼아 거짓말을 시킬만큼 객적지않다는 것도 알고있었다。

그가 난데없이 꾸며댄 스무명의 하객이 수지한테서 얻은 힌트라고 깨닫자 굴욕감이 엄습했다。그는 우울해졌다。

『아니예요。서울사람은마찬가지예요。제 졸업식에도 그 정도는 온걸요』

오목이가 느닷없이 열렬한 기세로 인재의 시골사람들을 변명하려 들었다。

『그럼 미스최도 금년에졸업했어요?』

『아뇨 작년 졸업이에요』

『그렇게 안봤는데』

『이래뵈도 올드미스예요』

『어느 대학인지 물어봐도 돼요?』

『싫어요』

『건또 왜요?』

『시시껄렁한 대학이거던요。사년동안 열등감과 싸운 것밖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 같지않아요』

『여자대학이었나요?』

『네』

『어쩐지』

『뭐가요?』

『남녀공학에선 여자들이 발랄 까지지 않으면 중성화되는 게 보통이니까요。미스최는 전혀 안그래요。좋은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좋은 거라뇨?』

『남자들이 동경하는 거、여자다움말예요』

『난 여자들이 활발하고거침없는게 참 부럽던데』

『난 그런 여자 도무지 취미 없어요。한데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버렸으면 쌍수를 들어 환송하겠어』

인재가 허풍스럽게 진저리를 쳤다。딴 뜻은 없었다。그는 그를 편안하게하고 으스댈 수 있게 하는 오목이의 초라함과 가련함에 그 정도의 아부는 아깝지 않을뿐이었다。

『여자친구들도 많았겠네요?』

『친구뿐인가요。한때 죽자사자 좋아한 여자애도 있었는걸요』

『한때라면?』

『군대 간 사이에 시집을 가버렸더군요』

『저런』

오목의 짧은 부르짖음속엔 놀람보다는 기쁨이 더 많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낀 인재는 음흉하게 미소지었다。

『그때 비로소 여자에게 가장 지킬만한、값어치가 있는 게 뭔가를 알게 됐죠』

『그게 뭔데요?』

『몰라서 묻나요?』

『모르겠어요』

『남자가 군대간 사이에 배신하는 건 여자들 공통의 음론데도 모르는 체 시침 떼긴가요?』

인재가 짐짓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다。

『시침 떼는게 아니예요』

『여자가 목숨 걸고 지킬만한건 자신의 선도(鮮度)밖에 없다는걸 알았죠。그걸 안이상 나도 여자 보는 눈을 극도로 단순화시키기로 했죠。물좋은 생선이냐、물간 생선이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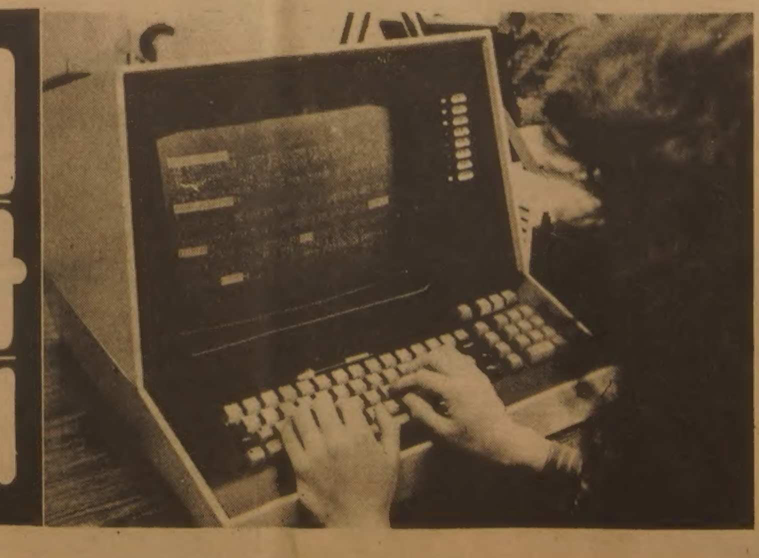
오목이 말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유행가 가사같지만 그렇게 슬픈 눈으로 날 보지말아요。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나요?』

『아、아네요。그런 건 아닌데도 조금 슬퍼요。아마 내가 물간 생선이어서 그런가 보죠』

『생선이 아니면 뭘게아녜요。미스최 생선이아닌 극소수의 여자예요。자신을 가져요』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3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춘성)
전화:633－7892(R)497－8900(B)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하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상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조 지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
광고주를 찾습니다.

구 인

신원보증을 확실히 할수 있는
21세~25세 사이의
가정을 내집같이 돌봐주실 용모단
정한 여자분 구함
전화 : 298-6117, 598-4143

씨알 한국인 여름학교
동쪽과 미시사가에서 운전하실 분 두분 구함
영어, 수학과 또는 운동코치를 겸하므로 Full Time
Job이 되겠으며 자필이력서를 150 Madison Ave. 로
보내주십시요. (주당: $180)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분. 11:00 p.m~7:00 a.m(Midnight Full Time) 8:00 a.m~4:00 p.m(Sunday Only)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Shoe Repair Store에서 일하실분 구함
263 Morningside Ave.
전화 : 281-2217 (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 Kitchen Helper 구함(남자분)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 960-9035

입주하셔서 아기들 (4살, 1살)보아주실분 구함.
특별히 우대해 드리겠읍니다.(Jane+Weston)
전화 : 447-1460 (세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에서 밤에 접시닦으실 분 구함. 월.화.수(오후4시~밤11시) 오후2시지나서 전화해 주시기 바람
전화 : 421-6016 (Masuda)

청소 하청하실분 구합니다.
월 $500씩 두곳, 경험 1년이상 있으신분
Hwy. 401 × 이스링톤. 전화 : 493-0320, 444-1322

남·녀 캐셔나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138 Mr. 리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홍), 531-0773(김)

Full Time Helper 구함
시간: 3:00 p.m-12:00 p.m 위치: Queen×Triller
전화 : 532-6143, 532-9638

Mac's Milk Store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주3일 : 금, 토, 일)
26시간 1 Week
전화 : 221-9051

유경험 여자 캐셔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일본음식점에서 부엌일 도우실분과
Handyman (Part time) 구함
195 Richmond St. W. 전화: 977-9519 Harry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 (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Bloor 와 Christie에 위치한 식당(Tavern) 급매
L . A . B . O 있음. 리스 : 15년.
좌석 : 100석 (Banquet Room : 200석)
자세한것은 Peter에게 문의 바람.
전화 : 656-0011

무스코카지역에 있는 부동산 매매
그로서리가게(과일. 채소등)와 집
가족끼리 운영하기에 알맞은 사업
큰 파킹장이 옆에 있음
※관심있으신 분은 부라운·로버트에게 전화주세요.
전화 : 789-1724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64-4431 (오후5시이후 연락 바람)

Becker 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스카브로지역)
꼭 관심 있으신분은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755-8852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사정상 급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Milk Store)
Whitby & Oshawa 전화 : 282-7596(Mr. 황)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Fast Take Out Food
중국음식도 메뉴에 넣을수 있음. 좋은조건의 리스
전화 : 633-2981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자동차 급매
81년도 뷰익·스카이라크 6기통·13,000Km
전화 : 249-6327 (Mr. Kim)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Variety Store 급매. 가정사정으로 인해 급매 코저함.
Rent : $350. 리스 : 10년. 주매상 : $2,500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음. 전화 : 757-6458

〈매매 또는 렌트〉
타 사업관계로 로타리오머신이있는 스토아와 2베드룸 급매
주매상 $3,500 좋은조건에 양도하겠음. 64 Kingston Road.

비데오 아케이드 쎄일
15대 머신 담배 Refreshment의 Licence를 지님
전화 : 266-9770

믿고 투자할수 있는 좋은기회!
급성장하는 지역의 Pharmacy for sale with building.
위치: On Weston Rd. 전화 : 781-2560(Mr. Balin)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자개문갑, 애기 3층장
전화 : 661-4581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하우스 렌트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지역.
Furnished 1Bed Room($달 180)독신환영
전화 : 763-3289, 365-1489

1 BedRoom & 2 BedRoom Apt.
College & Ossington Area.
$350-$450(M) 전화 : 531-6183

클립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장비 갖춘 Mr. Donuts Franchise
위치 : Young St. North Thornhill
넓이 : 1500 Sq. Feet
영업시간 : 6 : 30 Open - (24 Hours)
좋은조건의 Lease. Call Mr. Pridham 833-3095
The Gormley Group Realestate

버거 펙토리 매매
위치 : 모닝싸이드×세파드. Call Jhon 또는 Art.
오후5시에서 9시사이에 전화주세요. 전화 : 281-0288

아이스크림집 매매
전화 : 752-4766(Mr. Bang)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000이상. Rent & Lease 좋은조건
704 Wilson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 King St. E. (Bowman Ville. 오샤와 지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남녀커트, 파마및 스타일 전문
631 Bloor St. W. (서울여행사2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